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26호 [루계 제26100호] 주체107(2018)년 8월 14일(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증산돌격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공화국창건 70돐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이자

현지지도과업관철에로 힘있게 고무추동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지도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일군들과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 당의 로선과 방침, 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창발적의견들을 충분히 제기하며 일단 당에서 결론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치의 드팀도 없이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신의주화장품공장과 신의주방직공장, 신의주화학섬유공장, 신도군을 비롯한 현지지도단위들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달리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책임일군을 비롯한 도당위원회일군들은 현지지도단위들에 나가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그토록 마음쓰시며 삼복철강행군길을 헤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헌신에 대하여 감동깊이 이야기해주면서 일군들과 대중의 심장에 불을 지펴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신의주화장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강령적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도당위원회에서는 세계적수준의 화장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화장품공업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도록 하기 위한 투쟁에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신의주화장품공장의 당, 행정, 기술일군들은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힘을 넣으면서 질좋은 여러가지 화장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대중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또한 날로 높아지는 인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수 있게 화장품을 다양하게 만들고 가지수를 늘이기 위한 목표를 내세우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로 로동자, 기술자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온 공장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지도과업관철로 세차게 끓고있다.

화장품용기생산공정과 화장도구생산공정을 새로 꾸리며 화장품의 질을 높일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이와 함께 원료의 수입의존도를 낮출수 있게 생산공정을 현대화하는 사업이 진척되고 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신의주방직공장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도록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신의주방직공장에서는 당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 대중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종업원들의 생활조건, 로동조건을 개선하고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지도를 받은 신의주화학섬유공장에서 생산공정을 개건하고 생산을 정상화하게 하고있다. 당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단위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는것과 함께 종이생산공정개건공사를 빠른 시일안에 끝낼수 있게 떠밀어주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신도군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 갈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고있다.

신도군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군을 잘 꾸리는것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군에서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조국의 서북단에 자리잡고있는 신도군을 찾아주시고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랑과 믿음을 가슴깊이 새기고 군을 꾸리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고있다.

군의 책임일군들은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갈품종에 대한 연구사업을 다그칠수 있게 연구사들의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보장해주는데 힘을 넣고있다.

이와 함께 관개수로가시기와 시설물보수를 하며 갈농사에서 기계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신도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고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 신도군에 깃들어있는 당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 체득시키는것과 함께 그들이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을 정중히 꾸리고 잘 관리하도록 하고있다.

비단섬지구에 혁명사적판을 새로 건설하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진문헌들, 명제들을 정중히 모시며 사적물들을 전시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지도과업관철에로 적극 고무추동하는 도당위원회의 힘있는 조직정치사업에 의하여 신의주화장품공장, 신의주방직공장, 신의주화학섬유공장, 신도군을 비롯한 도안의 모든 령도업적단위들에서는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이 타오르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도안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령도업적단위들의 모범을 따라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9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습식동제련소 2단계 건축공사 적극 추진

상농광산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지금 상농광산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습식동제련소 2단계 건축공사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습식동제련소 1단계공사에서 발휘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침출장과 동전해장을 비롯한 2단계 건축공사를 본때있게 내밀고있다.

그리하여 가까운 앞날에 전반적인 습식동제련소건설을 완전히 끝내고 생산에 들어갈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물질적수요를 국내생산으로 보장할수 있는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경제구조를 갖추고 부단히 개선완비하여야 합니다.》

습식동제련소는 광산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당의 웅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불타는 충정과 견인불발의 투쟁정신으로 일떠세우는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다.

광산에 새로 건설되는 습식동제련소의 현대화수준은 높다.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정광투입으로부터 배소, 침출, 제련을 비롯한 전반적인 공정이 우리의 실정과 조건에 맞게 높은 과학기술적수준에서 운영되게 되어있다. 한해에 처리하는 정광량은 수천t에 달한다. 습식동제련소건설이 완공되면 많은 량의 유색금속과 질좋은 화학제품도 생산할수 있다.

광산당조직에서는 습식동제련소건설을 자체의 힘으로 해제낄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밑에 자력갱생의 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공사를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광산의 당, 행정책임일군들은 인민군대지휘관들처럼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높이 어려운 모퉁이들에 어깨를 들이밀고 걸린 문제들을 앞장에서 풀어나가고있다. 특히 공사를 맡은 일군들은 공사기일을 앞당기기 위한 단계별목표를 높이 세우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1단계공사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2단계 건축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이들은 침출장과 동추출전해장을 비롯한 규모가 큰 건물들의 트라스와 산농축기제작 및 조립과정에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자체로 풀어나가면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또한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공사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갔다.

함경남도당위원회에서는 광산의 생산전망을 열어나가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는 제련소건설을 다그쳐 끝내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1단계공사의 설비조립과정에 함경남도송배전부와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연구사들은 공사에서 걸린 문제들을 적극 풀어주어 공사기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하였다.

2단계 건축공사가 마감단계에 들어선 공사장에서는 지금 구내포장이 한창 진행되고있다.

이미 현대적이며 능력이 큰 습식동제련소 1단계공사가 끝난데 이어 2단계공사가 완공되면 광산에는 가까운 앞날에 우리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질좋은 유색금속을 더 많이 생산할수 있는 토대가 갖추어지게 된다.

본사기자 지원철

룡남산지구에 첨단기술개발원이 일떠선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는데서 선도자가 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첨단기술개발원건설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해나가고있다.

연건축면적이 1만 8천여㎡나 되는 현대적인 첨단기술개발원건설은 김일성종합대학을 일류급대학으로 발전시키고 나라의 첨단산업창설에 이바지하게 될 의의가 큰 대상공사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는것은 일류급대학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을 수령의 대학으로서의 혁명적성격과 본태를 변함없이 고수하고 세계에 명성을 떨치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대학으로 강화발전시키실 숭고한 구상을 펼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학의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첨단기술개발원건설을 세심히 이끌어주시였다. 그리고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였다.

첨단기술개발원건설을 위하여 대학의 책임일군들은 능력있는 일군들을 선발하여 현장지휘부를 조직하고 기술자, 기능공들을 망라한 강력한 건설력량을 편성하였다.

대학당조직에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그리하여 지난해 2월부터 건설전투가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공사에 참가한 돌격대원들은 첨단기술개발원건설을 하루빨리 앞당겨 끝내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정의 보고를 드릴 불타는 한마음안고 첫시작부터 기세를 올리며 놀라운 공사속도를 창조하였다. 이들은 짧은 기간에 방대한 량의 박토를 처리한데 이어 기초굴착과정에 불리한 조건이 조성되자 주저없이 뛰어들어 감탕을 퍼내고 기초콩크리트치기작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대학일군들은 건설속도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륜전기재와 중기계들의 대수를 늘이고 그 리용률을 부쩍 높이는 한편 자재보장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가면서 전투조직과 지휘를 적극 짜고들었다. 대학의 교직원들은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어려있는 첨단기술개발원건설에 깨끗한 구슬땀을 바치는 한편 많은 지원물자들을 보내주면서 건설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결과 지난해 몇달 안되는 기간에 건물골조공사가 결속되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대학에서는 건설기일을 단축하기 위하여 내외부미장작업을 진행하는것과 함께 원림구획을 정리하고 체육구, 독서 및 산보구, 휴식구건설공사를 동시에 내밀면서 립체전을 벌려나갔다.

지금 건설장에서는 수천㎡의 외벽타일붙이기공사가 끝나고 내부타일붙이기, 바닥색인조석깔기, 천정미장 등 마감건축공사가 적극 추진되고있다. 이와 함께 회의실과 토론회실, 공동개발실, 강의실 등을 꾸리는 사업과 당의 사랑이 깃든 선물설비들을 첨단기술개발원으로 옮기기 위한 준비사업도 벌어지고있다. 한편 무균무진화된 생산구역, 전자제품개발 및 생산실, 화학제품개발 및 생산실 등도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여가고있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올해를 더욱 뜻깊게 장식하며 우리 당의 후대사랑, 교육중시사상이 응축된 또 하나의 자랑찬 선물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전투장은 마감단계에 들어서면서 더욱 불도가니마냥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이제 머지않아 훌륭히 완공되게 되는 첨단기술개발원은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가 실현된 본보기단위, 과학연구설비들과 과학연구력량이 집중된 첨단연구기지, 첨단기술개발 및 첨단기술제품생산기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대한 새 기술보급기지 등의 사명을 수행하면서 대학의 과학교육발전과 나라의 첨단산업창설에 큰 기여를 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명훈

뜨락또르생산목표를 기어이 돌파할 기세로

금성뜨락또르공장에서

금성뜨락또르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뜨락또르생산을 늘일데 대한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철야진군으로 높이 세운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생산돌격전을 과감히 전개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기계공장들에서 현대화를 다그치고 새형의 뜨락또르와 륜전기재, 다용도화된 농기계들의 계렬생산공정을 완비하며 여러가지 성능높은 기계설비들을 집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합니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데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기계공업성과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피타는 노력에 의해 모든 전투장들이 불도가니마냥 세차게 끓고있다.

소재보장과 가공을 맡은 단위들에서 증산투쟁, 돌격투쟁의 불바람이 몰아치고있다.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는데 이바지할 결사의 각오와 불같은 애국심을 간직한 주물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국가과학원 흑색금속연구소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협동밑에 주체철에 의한 생산공정을 확립하여 주물품의 질을 높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놓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단조직장의 로동자들도 새로운 단조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많은 강재를 절약하면서도 가공시간을 훨씬 단축할수 있게 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1가공직장에서는 뜨락또르의 설계가 갱신된데 맞게 합리적인 프로그람들을 적극 받아들여 가공하기 어려운 부분품들도 마음먹은대로 척척 제작하고있다. 각 직장들에서도 수많은 기술혁신안들을 도입하여 더 많은 뜨락또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각종 부분품보장을 적극 따라세우기 위해 열정을 깡그리 쏟아붓고있다.

공장에서는 또한 소재와 부분품가공에서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 하고 뜨락또르생산의 전문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대책들을 부단히 따라세우고있다.

여러 직장들에 있는 조립작업반들을 통합하여 조립직장을 새로 더 내온데 맞게 이들은 부분품조립속도를 최대로 높일수 있는 대담한 작전을 펼치고 완강하게 실천해나가고있다.

부분조립을 맡은 1조립직장과 총조립을 담당한 2조립직장에서는 조립작업에서 나타나고있는 부족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치구장비, 시험대들을 새로 갖추어놓고 뜨락또르의 질을 최대로 높이는데 힘을 넣고있다.

현재 공장에서는 현행생산과 함께 모든 생산공정들을 자동화, 흐름선화, 로보트화하여 로력절약형공장으로 만들어 세계적수준의 뜨락또르공장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내밀고있다.

금성뜨락또르공장과 련관단위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철의 신념을 지니고 하루빨리 생산목표를 점령하여 9월의 대축전장에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안고 들어설 한마음으로 불철주야의 전투를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지혁철

남양제염소 6직장 개건현대화공사에 힘을 집중

소금공업관리국에서

소금공업관리국과 그 아래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남양제염소 6직장 개건현대화공사를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소금생산을 늘이는것은 식료공업과 화학공업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을 발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방법은 소금생산의 집약화를 실현할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으로서 생산주기를 대폭 줄이고 원가를 낮추면서 정보당 생산량을 몇배로 장성시킬수 있다.

저류지, 예비증발지, 증발지, 결정지를 거쳐야 하는 바다물을 리용한 종전의 소금생산방법과는 달리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방법은 바다물보다 농도가 몇배나 높은 지하초염수를 리용하는것으로 하여 지금 있는 소금밭면적의 절반정도만 소금생산에 쓰이고 나머지면적에서는 바다가양식을 할수 있는 우점을 가지고있다.

지하초염수로 생산한 소금은 바다물로 생산한 소금에 비하여 서슬이 적어 쓴맛이 거의 없고 맛이 좋으며 칼리움과 요드함유량이 많고 중금속함유량이 적으므로 사람들의 건강증진과 식료품생산, 화장품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생산에서 리용가치가 매우 높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소금공업관리국에서는 능력있는 일군들로 현지에 강력한 건설지휘부를 조직하고 공사를 전투적으로 다그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드는 한편 자재보장을 앞세워나갔다.

해당 부문의 일군들은 건설현장에 자주 나와 공사에서 걸린 문제들을 해결해주면서 건설자들을 고무해주고있다.

소금공업관리국아래 여러 제염소들에서 달려온 건설자들은 공사를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무조건 끝내겠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소금밭개조를 위한 1단계공사에서 련일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갔다.

붉은기가 펄럭이고 힘있는 진군가가 울리는 속에 백수십정보에 달하는 소금밭개조전투가 벌어졌다.

감탕판에 기계설비를 들이댈수도 없고 때없이 비가 쏟아지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건설자들은 감탕마대를 메고 달리고 또 달려 30여만㎥의 방대한 토량을 불과 몇달만에 처리하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건설자들은 앙양된 기세를 조금도 늦춤이 없이 소금밭타일붙이기, 판고루기, 수로정리를 비롯한 소금밭정리와 사무청사, 초염수공급양수장, 소금보관창고 등 여러 대상들에 대한 건축공사 및 지하까벨공사, 수㎞구간의 도로작업을 비롯한 2단계공사도 기본적으로 완성하여 공사를 기한전에 앞당겨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소금공업관리국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여러 단위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지하초염수채취에 쓰이게 될 채염기, 우묵장치를 비롯한 여러 설비들을 제작설치하기 위한 사업과 함께 지대정리를 비롯한 마감작업에 총력을 집중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성룡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수도의 려객운수운영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자

수도려객운수국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궐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수도려객운수국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궐기모임이 12일에 진행되였다.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 김능오동지, 수도려객운수국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수도려객운수국당위원장 룡군철동지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례년에 없는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수도려객운수부문에 불멸의 령도자욱을 새기시며 나라의 려객운수문제, 대중교통운수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수도시민들의 교통문제해결을 두고 언제나 마음써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우리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보아주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전차생산에 기여한 전체 성원들에게 감사를 주시는 최상최대의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김정일애국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자기 초소, 자기 일터에서 맡겨진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수도려객운수부문의 강화발전에 아로새겨진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결사적인 투쟁을 벌려 려객운수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모든 운영단위들에서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려객운수수단들의 기술상태를 보다 개선하고 실동률을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2단계 현대화공사를 힘있게 벌리며 무궤도전차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에 계획된 전차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뻐스수리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증산돌격운동에 총매진하여 우리의 손으로 만든 멋쟁이궤도전차들이 수도의 거리를 달리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으로 당을 옹위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차선로보수사업소의 로동계급이 궤도전차, 무궤도전차의 정상운행보장에서 맡겨진 책임과 임무를 다해나가며 선로들의 현대화사업을 다그쳐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새형의 륜전기계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인민들의 교통상편의를 원만히 보장하고 수도려객운수운영의 정상화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하여 타일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평양건재공장에서-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정론

전인민적인 창조대전 앞으로!

1

사회주의조선의 열정넘친 인민이 천하제일강국을 소리쳐부르며 경제건설대진군에 떨쳐나섰다.

우리 혁명의 성지에 공산주의리상향을 꾸려가는 삼지연군안의 건설장들과 드세찬 공격전이 벌어지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 거창한 단천전역과 황해남도 물길 2단계 공사장을 비롯한 대건설전투장마다에서 천만군민의 피를 끓이는 산악같은 의지는 무엇인가. 인민생활향상의 전구들을 지켜선 경공업부문의 로동계급과 우리의 미더운 농업근로자들의 진실한 심장들에 불길쳐오르는 뜨거운 열망은 과연 무엇인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리자!》

이 하나의 의지, 전인민적인 열정을 안고 온 나라가 일떠섰다.

우리의 연료, 원료로 압연강재를 대량생산할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고 희열에 넘쳐 더 큰 보폭을 내짚는 북방의 강철전사들이며 20t산소전로를 비롯한 우리 식의 생산공정을 확립하며 주체철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는 황철로동계급의 불같은 모습에서도, 7월 화물수송계획을 완수한 우리의 수송전사들이 높이 울려가는 증송의 기적소리에서도 시대를 들끓이는 이 비상한 열풍을 후덥게 느낄수 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의 승리봉을 향하여 질풍노도치는 우리 인민의 창조의 열정은 삼복의 폭양도 무색케 하고있다.

그런 속에 얼마전 2.8직동청년탄광의 로동계급과 락랑구역 남사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이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 궐기하는 전투적회합을 가지였다.

조국번영의 중대한 시기를 자각한 활화산같은 이 민심, 창조와 건설을 인생의 긍지와 희열로 아는 인민을 이끌어 최후승리의 직선주로에 세워주며 위대한 향도자 우리 당은 력사적인 진군의 포성을 울려주었다.

《모든 힘을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에로!》

이것이 오늘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에 총궐기하는 우리 인민의 애국의 함창이며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현 단계의 투쟁에서 우리가 높이 추켜들어야 할 참다운 충정의 기치, 용기찬 창조의 표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우리 당이 총력을 집중하여야 할 기본전선은 경제전선이며 투쟁과업은 강력한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하는것입니다.》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은 위대한 승리가 위대한 행복으로 전환되는 력사의 분수령을 점령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창조대전이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조선인민의 숭고한 력사적사명과 중대한 정치사상적의의가 실려있다.

경제전선은 오늘 우리가 총력을 집중하여야 할 기본전선이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조국이 세상에 부럼없는 인민의 행복을 위한 번영의 려정에서 내짚은 장엄하고 의미깊은 보폭이다. 전략국가인민의 민족적긍지와 비상히 앙양된 애국적열정을 총폭발시켜 짧은 기간에 나라의 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상승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워 지속적발전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서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사회주의경제, 지식경제를 건설하자는데 이 전략목표의 중대한 의미가 있다.

영원히 맑게 열린 내 나라의 하늘아래 창조의 마치와 낫과 붓을 더 힘있게 틀어잡을수 있게 된 오늘 우리가 일터마다에서 증산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고 해마다 풍요한 가을을 마련해간다면 그것은 곧 경제강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는것으로 된다.

이 력사적인 투쟁에서 벌써 2년 남짓한 시일이 흘렀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힘찬 투쟁을 벌려 이룩한 성과도 크지만 아직 더 많은 일감, 더 높은 고지들이 앞에 있다.

바로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데 5개년전략목표수행 나아가서 경제건설대진군의 승리가 달려있다. 지금이야말로 필승의 신심과 애국의 열정을 안고 자력갱생, 견인불발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더욱 산악처럼 일떠서야 할 때이다.

드높은 증산동음이 그대로 승전의 포성, 참된 애국의 교향곡으로 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에 실질적이고 책임적인 공헌을 하는 우리 국가에 대한 무의미한 제재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는 적대세력의 행태는 오히려 우리가 가는 자력부강의 길이 얼마나 옳고 사회주의조선의 경제건설대진군이 얼마나 큰 력사적의의를 가지는가를 반증해줄따름이다.

남에 대한 의존심은 국력을 쇠퇴몰락시키는 사약이며 자력갱생만이 영원한 승리라는 력사의 교훈, 혁명의 진리가 천만심장에 더욱 뚜렷이 새겨지고있다.

우리 삶의 요람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창조물들로 지키고 더욱 빛내어나가야 한다.

창조가 참된 애국으로 되고 증산의 열매로만 충정을 말할수 있는 오늘날 우리 인민 매 사람들이 애국충정으로 삶을 빛내이는 유일한 길도,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기 위한 최상의 방도도 전인민적인 창조대전을 힘있게 전개하는데 있다.

전인민적인 창조대전, 이는 세계의 그 어느 나라도 엄두조차 낼수 없고 모방조차 할수 없는 유일무이한 조선의 모습, 사회주의의 모습이다.

강국건설은 어느 한두사람이 분발하고 어느 한두개 중요부문이 일떠서서 이룩될 위업이 아니다. 전민이 하나의 의지로 힘을 합치고 나라의 모든 부문이 쉼없이 상승하고 비약할 때 이룩될수 있는 명실공히 전인민적이고 전방위적인 창조대전, 건설대전이다.

인민의 뜻으로 선 나라, 인민의 힘으로 전진하여온 우리 국가의 발전행로는 곧 전인민적인 창조대전의 력사이다.

우리 인민은 혁명의 중대한 시기마다 불타는 애국충정으로 거창한 증산투쟁을 벌려 조국앞에 승리의 국면을 열어놓은 고귀한 전통을 가지고있다.

해방후 공장을 복구하고 기관차를 수리하자고 해도 변변한 기술자 한명, 도면 한장 없고 집집의 가마에 안칠 쌀 한줌마저 귀했던 그때 우리 인민은 수수천년 짓밟히던 자기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보답의 일념으로 증산경쟁운동을 힘있게 벌려 생기있고 활력에 넘친 인민경제를 일떠세웠다.

《증산하고 절약하여 5개년계획을 기한전에 넘쳐 완수하자!》

잊지 못할 1956년 12월의 그날 우리 수령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이 구호를 높이 받들고 어제날의 전승세대가 강선의 노을처럼 붉은 신념과 열정으로 반당반혁명을 대고조의 불길속에 처박으며 창조한 기적은 또 얼마나 세계를 놀래웠던가.

바로 이 전통, 이 정신을 오늘 우리가 이어나가야 한다. 어머니조국의 가장 준엄했던 나날 극심한 생활상고통을 겪으면서도 자기들의 일터를 찾으신 어버이장군님께 식량이 아니라 일감을 더 달라는 불같은 진정을 아뢰인 자강도사람들, 사회주의에 대한 배신, 혁명에 대한 비관을 선반기로 쓸어버리며 당을 보위하고 강국의 려명을 부른 그 뜨거운 심장들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있다.

내세운 목적과 이룩할 목표에 있어서 매우 비상하고 의미심장한 오늘의 증산돌격운동이다.

어제날의 증산투쟁들이 보다 강해지고 더 빨리 전진하기 위한것이였다면 오늘의 증산돌격은 제일 강해지고 완전히 승리하기 위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인민이 주인된 이 땅에서 인민의 힘으로 인민의 재부를 더 많이, 더 훌륭히 만들어내기 위한 오늘의 증산돌격운동은 이 땅의 재부보다 먼저 새 세기 혁명정신,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하는 사상의 대진군, 사상의 돌격전이다.

증산의 예비는 대중의 심장속에 있으며 증산투쟁은 인간개조, 사상개조와 뗄수없이 련관되여있다.

천리마의 기상에 속도전의 기세를 더한 위력한 대중운동으로 전개된 80년대속도창조운동의 가장 빛나는 총화는 눈부신 경제건설성과에 앞서 《80년대의 김혁, 차광수》들의 대부대가 태어난것이였다. 주체혁명의 위대한 새시대에 이 땅우에 창조된 눈부신 기적들과 더불어 조국은 만리마기수들을 맞이하였다.

류례없이 험난한 강국위업의 한길에 한마음 변함없이 당을 따르고 일심의 억센 반석이 되어준 사랑하는 인민을 안아 최상의 문명과 행복의 주인으로 떠받들어줄뿐아니라 경제건설대진군의 벅찬 투쟁속에서 전략국가의 공민답게 사상과 신념의 강자, 창조와 건설의 능수들로 키워 내세워주려는데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을 호소한 우리 당의 숭고한 의도가 있고 웅심깊은 사랑이 있으며 천리혜안의 예지가 있다.

력사과정에서 인간의 사상이 발동되여 못해낸 일이 없고 대중의 정신력에 의거하여 벌린 투쟁은 언제나 승리했다.

전략국가의 지위에 단숨에 올라선 우리에게 경제강국건설은 문제로도 되지 않는다.

모두가 부러워할 우리 행복의 보화들로 우리 사상의 진리성, 우리 제도의 우월성, 우리 국가의 강대성을 온 세계에 떨치자.

이런 배심 든든히 오곡백과를 가꾸고 천만재부를 쌓아올려 천하제일의 락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울 우리 인민의 기세는 하늘에 닿았다.

2

인민의 길, 사랑과 믿음의 대진군을 막을 힘은 그 어디에도 없다.

오늘의 전인민적인 창조대전은 위대한 어머니 우리 당이 인민을 위해 열어주고 인민에 대한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사랑과 믿음의 길, 행복과 승리의 길이다.

우리 인민은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잊지 못할것이다.

삼복의 폭염속에 삼천메기공장을 찾으신 그날 물 절반, 고기 절반의 흐뭇한 광경이 펼쳐진 양어못들앞에서 그토록 환하게 웃으시던 우리 원수님의 자애로운 그 영상을.

어두운 랭동저장고에까지 몸소 들리시여 랭동된 메기들을 보시며 마치 금괴를 쌓아놓은것만 같다고 그리도 기뻐하실 때 이 나라 천만아들딸들이 뜨거운 격정속에 가슴깊이 새겨안은것이 있다.

력사적인 우리 당 제7차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빛나는 전망을 펼쳐주실 때, 혁명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여 최후승리의 작전도에 경제건설대진군의 붉은 화살표를 힘있게 그어주실 때 우리 원수님의 위대한 심장속에 불길처럼, 산악처럼 굳건히 자리잡은것은 진정 무엇이였던가.

인민에 대한 사랑, 더없이 훌륭한 우리 인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였다.

그 사랑, 그 믿음을 안으시고 이처럼 모진 더위속에서도 창조와 건설의 전구들을 찾고 또 찾으시는 그 눈물겨운 애국헌신의 자욱자욱에 심장이 불타올라 따라선 우리 인민의 충정의 길, 애국의 길이 오늘의 전인민적인 창조대전, 새로운 증산돌격운동이다.

우리 원수님 따라 세상이 보란듯이 이 땅우에 천하제일락원을 일떠세우자.

새로운 시대정신이 응축된 무궁의 재부들을 강산에 넘치게 쌓아올려 한없이 고마우신 우리 원수님께 기쁨을 드릴 일념안고 정에 살고 의리에 사는 이 나라 사람들, 자존심과 리상이 높고 배짱과 의지가 강한 영웅적조선인민이 피끓이며 일떠섰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으로 당을 옹위하자!》

용암보다 더 뜨거운 인민의 이 진정이 시대를 진감하는 창조와 건설의 뢰성으로 장엄하게 메아리친다.

오늘의 전인민적인 창조대전은 곧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다.

지난 수십년동안 우리 당의 품속에서 성장하여오면서 당정책결사관철에 우리의 승리가 있고 당정책결사옹위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것을 철리로 확증한 우리들이다. 하기에 우리는 위대한 당의 사상과 정책이 눈부신 현실로 펼쳐질 때 그것이 곧 우리가 바라는 천하제일강국이라고 자부하는것이다.

자력갱생, 견인불발의 혁명정신을 만복창조의 제일무기, 필승의 기치로 더 높이 추켜들자.

이것이 오늘 삼복의 폭염을 헤치시며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그토록 절절하게 하시는 우리 원수님의 귀중한 가르치심들을 심장에 새기며 우리 인민이 다시금 억세게 가다듬는 운명의 철리이다.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보시며 우리 원수님 왜 그토록 기뻐하시였는가.

2단계 현대화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차체외부의 굴곡면의 가공정밀도와 열면의 평탄도, 이음짬처리수준이 높아지고 도장도 잘하였다고, 모든 의장품들의 질과 문화성이 현저히 개선되였으며 바닥고무와 유리고무테 등 고무제품들과 수지장식함판의 질도 좋아졌는데 이 모든것이 다 우리 공장들에서 생산한것이라니 더 기쁘고 더더욱 고맙다고, 대단히 만족하며 백점만점짜리라고 높이 평가해주신 그 말씀이 천만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린다.

한해에 수천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할수 있는 현대적인 양묘장을 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건설하여 삼복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우리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강원도의 일군들에게는 찾아오는 사람들앞에서 할 말이 많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원수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릴수 있은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사연을 담아 이렇게 한마디로 대답한다.

《우리 원수님 제일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자력갱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력갱생의 창조물을 보실 때 우리 원수님 제일로 기뻐하십니다.》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금은보화를 주고도 살수 없는것이 민족자존이라는 드센 배짱과 각오를 가지고 자력갱생, 자급자족을 체질화하자.

자그마한 성과를 놓고 자화자찬할것이 아니라 무엇이나 제힘으로 남보다 더 잘해보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자.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우리 원수님과 끝까지 한길을 갈수 있다.

오늘의 증산돌격운동에서 우리가 틀어쥐어야 할 만능의 열쇠는 과학기술이다.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사회주의경제, 지식경제강국건설을 목표로 내세운 우리에게 있어서 과학기술에 대한 태도는 곧 혁명에 대한 태도이며 당정책에 대한 관점이다.

우리 원수님께 커다란 기쁨과 만족을 드린 평양무궤도전차공장 로동계급의 투쟁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공장의 과학기술보급실에는 《과학과 기술로 우리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키자!》, 《누구나 다 새 기술의 창조자, 개척자가 되자!》라는 구호들이 있다.

구호를 내걸기는 쉽다. 그러나 구호대로 살며 투쟁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당의 사랑과 믿음속에 시대의 의미깊은 정사를 마련해오던 나날에 이들은 바로 이 구호들의 글발을 심장에 새기고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지식형의 기능공들로 준비하면서 현대적인 무궤도전차도안들도 창작하고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최대한 실리를 보장할수 있는 통합생산체계도 구축해놓았다.

자력갱생하려는 사람만이 과학기술에 운명을 걸수 있고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어야만 자력갱생할수 있다는 귀중하고 생동한 모범이다.

조국력사의 중대한 시기에 전개되는 전인민적인 창조대전의 승리는 전적으로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의 어깨우에 실려있다.

일군들이 일떠서야 나라의 경제가 솟구치고 일군들의 심장에 불이 달려야 대중의 정신력이 활화산같이 폭발한다.

오늘의 증산돌격전은 우리 일군들의 량심과 의리의 엄정한 시험장이다.

천만의 가슴을 뜨겁게 적시는 위대한 의리의 세계가 있다.

신의주화장품공장과 평양화장품공장을 비롯한 우리 나라 화장품공장들에서 그 가지수를 다 헤아릴수 없는 다종다양한 화장품들이 경쟁적으로 쏟아져나오고 우리 녀성들이 미처 골라쓰지 못하고있는 오늘의 이 현실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번만이라도 보실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수령님, 장군님 한평생의 로고가 스민 귀중한 씨앗들이 결실을 맺어 인민들이 그 덕을 보게 될 때마다 우리 수령님 생각, 장군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절절히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그 말씀.

당의 품속에서 혁명가의 고귀한 삶을 받아안고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자라난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귀중한것이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혁명적의리이다.

만약 우리 일군들이 주체혁명의 중대한 시기에 우리 원수님께 힘이 되어드리지 못하고 짐이 된다면 어버이장군님 얼마나 가슴아파하시랴.

진정 우리 당이 천만자루의 품을 들여 키워주고 내세워준 우리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고결한 의리로 가슴 불태우며 자기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쳐나가야 할 혁명의 전구가 바로 증산돌격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오늘의 경제건설전투장들이다.

투철한 사상의 강자, 철저한 사상론자만이 참된 의리의 인간으로 살수 있다.

오늘 그 누구보다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불덩이같이 뜨겁고 칼날같이 예리하며 번개처럼 빨라야 할 사람들이 우리 일군들이다.

지난 7월 현지지도의 길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방들의 가방공장건설정형을 료해하여보시고 그 수준이 현저히 차이나는 실태를 분석하시면서 자그마한 학생가방공장을 하나 꾸리는데 수준이 이렇듯 차이나는것은 결코 도들의 경제력의 차이가 아니라 당정책을 접수하는 일군들의 사상관점의 차이로 보아야 한다고 심각히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의 사상과 의도를 뼈속까지 새긴 정수분자들, 우리 당정책을 민감하게 받들고 그 집행을 선두에서 이끌어나가는 지칠줄 모르는 선봉투사들을 시대가 바라고 인민이 기다리고있다.

우리의 일군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켜 만사를 풀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정치활동가들답게 증산돌격운동의 초소들마다에서 자력갱생, 견인불발의 투쟁기풍과 증산투쟁, 창조투쟁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아갈 때 경제전선에서의 승리는 반드시 이룩되리라.

강원도양묘장을 찾으신 그날 우리 원수님께서는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이렇게 요란한 양묘장을 건설한다는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을텐데 정말 탄복하게 된다고, 당정책관철에서 늘 제일먼저 기치를 들고나가는 강원도당에는 일감을 줄 멋이 있고 하나라도 더 해보겠다고 아글타글 뛰여다니는 강원도일군들을 하나라도 더 도와주고싶다고 정담아 말씀하시였다.

당이 안겨준 일군이라는 부름에는 혁명의 전진, 인민의 행복을 목숨걸고 책임지라는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다.

인민을 위한 보람있는 일을 하나하나 찾아할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신 우리 원수님의 숭고한 행복관에 우리 일군들의 삶과 투쟁의 좌우명이 있다.

당의 뜻을 꽃피우고 인민에게 행복과 기쁨을 줄수 있는 일을 하나라도 더 찾아 훌륭히 해내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 단위를 시대의 전형단위로 솟구치게 하는 일군을 조국과 인민은 영원히 기억할것이다.

전형단위를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령도방법을 구현한 오늘의 증산돌격운동에서 령도업적단위들이 기관차, 견인기가 되여 5개년전략목표수행의 승전포성을 남먼저 울려나가자.

령도업적단위 일군들은 오늘의 증산돌격운동의 앞장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결사관철하기 위하여 누구보다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여야 하며 경쟁단위들사이에 증산돌격운동을 호소하는 편지와 회답편지들도 주고받고 경쟁과정에 이룩된 경험을 교환, 공유하는 사업에서도 선도자, 본보기가 되자.

당의 품속에 나서자란 천만아들딸들이여,

인민의 소원을 천만금을 들여서라도 풀어주는것, 인민이 바란다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어야 한다는것이 어머니 우리 당의 변함없는 의지이다.

숭고한 창조정신으로 피끓이며 창조의 거인, 건설의 투사들로 불사신같이 일떠설 때는 왔다.

우리는 무엇으로 승리를 확신하는가.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조국을 세계적인 전략국가로 재탄생시키고 세계정치구도의 중심에 당당히 올려세운 원동력이며 근본비결인 일심일체의 거대한 위력이 있다.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며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친 위대한 우리 인민이여,

혁명의 최후승리를 확신하며 오늘의 이 거창한 창조대전에 한마음한뜻으로 떨쳐나서자.

모두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기 위하여 당의 령도따라 승리의 신심드높이 용기백배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오늘같이 중대한 력사적시기에 전인민적인 창조대전, 증산돌격운동이라는 가장 정확한 활로와 힘있는 전진방식을 틀어쥔 우리 인민은 반드시 경제강국의 빛나는 승리봉을 점령할것이며 주체혁명의 장엄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다.

리 철 민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싸운 항일혁명선렬들의 고귀한 정신세계를 가슴깊이 새겨간다. —대성산혁명렬사릉에서—　본사기자 최충성 찍음

실속있는 교양사업

남포시 항구구역 한두동 초급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근로단체동맹원들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깊이 새겨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여러 모임계기때마다 녀맹해설대원들을 출연시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이 수록된 위대성도서의 내용을 참가자들에게 인식시키고있다.

녀맹예술선동대활동도 활발히 벌리고있다.

얼마전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녀맹예술선동대의 공연을 조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칭송한 노래와 전시가요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용사들이 발휘한 조국수호정신을 반영한 노래들이 공연종목으로 올랐다.

공연은 관람자들로 하여금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천출위인상을 다시금 뜨겁게 절감하게 하였으며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한길로 억세게 투쟁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게 하였다.

이밖에도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조국방위자들의 영웅적위훈, 투쟁정신을 깊이 새겨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초급당위원회의 사상교양사업에 고무된 당원들과 근로단체동맹원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동맹조직생활에 잘 참가하며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할 열의로 가슴을 불태우고있다.

로농통신원 곽봉숙

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혁명발전의 중요한 요구

오늘 우리 당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릴것을 호소하였다. 당의 의도대로 증산돌격전을 맹렬히 벌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훌륭히 수행하자면 이 운동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똑바로 인식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 총력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산돌격운동은 당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기어이 완수함으로써 당의 구상과 결심을 빛나게 실현하고 자립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다져 경제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충정의 운동, 자력자강의 대진군운동이다.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에는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치높이 혁명과 건설에서 쉼없는 앙양을 일으켜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이 깃들어있으며 당중앙과 사상과 뜻, 발걸음을 같이하며 영웅적위훈을 창조해나가는 우리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어려있다. 당의 의도대로 5개년전략목표를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주체조선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의지이다.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당의 령도적권위를 백방으로 옹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 당은 독창적인 사상과 로선,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사회주의건설의 시대적모범을 창조해나가는 백전백승의 혁명적당이다. 류례없이 복잡하고 간고한 시련속에서도 대중의 무궁무진한 정신력과 창조력을 발동하여 강국건설의 력사적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온 우리 당의 령도는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고 이 땅우에 세기적변혁을 안아온 근본원천이였다. 우리 인민은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면 모든 일이 잘되고 천만가지 행복이 꽃펴나게 된다는것을 폐부로 절감하였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무조건 한다, 이것이 당과 사상과 숨결, 발걸음을 같이하며 당의 령도적권위를 결사옹위하려는 천만대중의 불타는 신념이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해상철길을 훌륭히 완공한 고암—답촌철길건설자들은 당의 구상과 결심을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당의 위업을 한마음한뜻으로 충직하게 받드는 인민,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떨쳐나서는 우리 인민에게는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 전체 인민이 대중적영웅주의와 집단적혁신으로 오늘의 증산돌격운동에서 자랑찬 승리와 성과들을 이룩해나갈 때 일단 결심하면 못해낼 일이 없는 우리 당의 위대성은 더 높이 떨쳐지게 될것이다.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주체조선의 강용한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남에 대한 의존이 나라를 속국으로 만드는 길이라면 자기 힘에 대한 믿음은 작은 나라도 강대국으로 만드는 보검이다.

지금 적대세력들은 비렬하고 끈질긴 제재봉쇄책동으로 공화국의 전진발전을 가로막아보려고 어리석게 놀아대고있다. 경제제재로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신념을 허물어보려는것은 망상이다. 적들의 책동은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끝까지 나아갈 의지를 백배해줄뿐이다.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밖에 없으며 우리에게는 년대와 세기를 이어 휘날려온 자력갱생의 붉은 기가 있다. 오늘의 증산돌격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자력갱생대진군운동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주체적인 생산공정을 확립하며 그에 의거하여 생산정상화, 생산활성화의 동음을 높이 울려나갈 때 원수들의 제재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승전포성을 높이 울릴수 있다. 세계는 자력자강을 신념화, 체질화한 우리 인민이 이 위대한 힘을 폭발시켜 오늘의 증산돌격전에서 어떻게 적대세력들의 제재책동을 묵사발내고 주체조선의 자주적존엄을 만방에 떨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자립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인민생활을 높여 사회주의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절실한 요구이다.

당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목표는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사이 균형을 보장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것이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는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라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였다. 지금 우리에게는 경제건설에 모든 인적, 물적, 기술적잠재력을 총집중, 총동원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여있다. 이제 우리가 5개년전략목표를 기한내에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리면 경제강국건설의 밝은 전망이 열려지게 될것이다.

오늘 우리가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는 근본목적은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자는데 있다. 우리 당이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을 발기한것도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정상화의 불길, 증산의 거세찬 동음속에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명제품, 명상품들을 펑펑 생산하고 전야마다에 풍요한 가을을 마련하여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가 존재방식으로, 혁명적당풍으로 되고있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생활향상은 중차대한 투쟁과업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당의 의도대로 인민생활향상에서 실질적인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오늘의 증산돌격운동을 우리의 사회주의강국건설사에 혁명적전환의 계기로 뚜렷이 아로새겨야 한다.

김 용 일

탄부들이여, 9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돌진하자

과학적인 작전과 완강한 실천력

석탄공업성 일군들

석탄공업성의 일군들이 화력탄보장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서부지구의 탄전들에서 증산돌격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석탄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과학적으로 잘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원대한 목표와 리상을 가지고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며 새것을 창조하고 받아들이는데서 개척자가 되고 선구자가 되며 일단 시작한 일은 완강하게 내밀어 끝장을 보는 실천가가 되여야 합니다.》

석탄공업성의 일군들은 선행공정인 굴진을 확고히 앞세워 석탄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경질합금생산기지, 중공강생산기지를 자체로 꾸려 굴진설비들을 서부지구의 모든 탄광들에 공급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패기있게 해나가고있다.

나라의 경제전반을 활성화하는데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성의 일군들은 과제추진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면서 현실에서 걸린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고있다.

일군들은 경질합금을 만드는데 필요한 광석을 생산하는 광산의 채굴설비와 자재를 제때에 보장해주기 위해 현지료해를 한데 기초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중공강생산에 필요한 소재보장을 위해 련관단위들과의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이와 함께 채굴작업에 절실히 필요한 안전등생산에도 힘을 넣고있다.

성일군들의 노력에 의하여 어느 한 탄광안전등공장에 일체식안전등생산공정이 새로 꾸려지게 됨으로써 안전등생산의 주체화를 실현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갖추어지게 되였다.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기 위한 과학적인 작전과 지휘를 짜고드는것과 함께 운반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도 성일군들의 창조적적극성은 높이 발휘되고있다.

성일군들은 서부지구의 모든 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이 과학기술인재들과의 사업에 큰 힘을 넣으며 자체의 기술개발력량을 강화하도록 하여 매 단위에 꾸려진 탄차베아링생산기지들이 실질적으로 용을 쓰게 하였으며 무동력삭도를 대대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사업도 끈기있게 밀고나가고있다. 뿐만아니라 매 탄광들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복합벨트굴대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벨트콘베아의 가동률을 높임으로써 석탄운반에서 혁신이 일어나게 하고있다.

그리고 이미 도입된 축전지식교류전차의 견인전동기와 변환기, 충전장치의 특성을 개선하여 전차의 석탄운반효률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시키고있다.

일군들의 전투적인 작전과 지휘에 따라 능률높은 채탄법을 받아들여 석탄증산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사업도 활기있게 진행되고있다.

다기능화된 판성식적재운반설비를 리용한 광폭식채탄법과 면붕괴식채탄법 등 능률높은 채탄법을 도입하기 위한 투쟁이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와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석탄채취률을 지난 시기보다 훨씬 높이기 위하여 완만한 경사지와 보통경사지, 급경사지의 탄층조건에서 여러가지 채탄법들을 적용할 때 얻어진 기술경제적지표들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그에 대한 자료기지를 구축하고 각이한 채탄법들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막장통기대책을 세우기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이와 함께 성일군들은 탄광의 물영향구역 채탄장물빼기공법을 매 단위들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받아들여 장마철기간에도 중단없이 석탄생산을 내밀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있다.

굴지의 탄전들에서 화보탄량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하여 새 채탄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서 큰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성일군들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순천지구의 어느 한 탐사구역의 지질구조적특성을 해명하고 세부종합물리탐사방법을 확립하여 탄상평가자료확증에서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고있으며 심부고분해능결합물리탐사기술을 비롯한 선진적인 탐사방법을 받아들여 새 채탄장을 예견성있게 마련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성일군들은 탄광의 현장기술일군들과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국가과학원, 석탄연구원, 평성석탄공업대학의 과학자, 기술자들사이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고있다.

그리하여 석탄생산의 돌파구를 여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연구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탄광들의 석탄선별시설을 잘 꾸리고 버럭을 철저히 선별하기 위하여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 나간 성의 일군들은 공기부양식선탄기를 단위의 실정에 맞게 제작설치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애국의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성의 일군들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선진과학기술을 생산에 적극 도입하며 생산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중요한 정책적과업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 가운데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남덕청년탄광과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명대탄광에서 능률적인 채탄법에 대한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였으며 그 경험을 서부지구의 모든 탄광들에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자강도공급탄광에서 콩크리트다매동발을 리용하여 채탄장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기술에 대한 성적인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였으며 이것이 동발나무소비기준을 낮추기 위해 애쓰고있는 여러 단위들에서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성일군들은 현재 모든 단위들에서 동발시공조작이 간편하고 채탄장에서 탄부들이 쓰기 편리하게 경량화된 콩크리트다매동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도록 요구성을 더욱 높이고있다.

서부지구의 탄전들에서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석탄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 전투적인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는 석탄공업성의 일군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9월의 대축전장을 향한 총진군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있다.

본사기자 백성근

증산의 지름길

◇ 지금 서부지구의 탄전들에서는 우리의 미더운 석탄공업부문 일군들과 기술자들, 탄부들이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석탄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본때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2.8직동청년탄광에서는 균형추조에 의한 축강생산공정을 확립하고 자체로 탄차축과 전차축을 생산하여 도입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정밀주조에 의한 전차소치차생산과 유연축을 쓰는 채탄막장장비 도입투쟁에서도 전진의 보폭을 크게 내디디고있다. 천성청년탄광에서는 탄광의 암질조건과 폭약의 특성에 맞는 집중장약에 의한 속빼기발파방법을 도입하여 폭약과 뢰관을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서부지구 탄전의 다른 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탄부들도 석탄공업부문에 파견된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수입에 의존하던 탄광설비들과 부속품들을 자체로 만들어쓰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피고있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한 탄광기술일군은 석탄생산에 필요되는 설비라면 그 무엇이든다 자체로 만들어낼 열의에 충만되어있다고 말하였다.

바로 이것이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를 더욱 가속화할데 대한 당의 뜻을 결사관철해가는 석탄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심장의 목소리이며 이런 투쟁열의에 의해 석탄산이 나날이 높아지고있다.

◇ 석탄은 공업의 식량이며 석탄산의 높이는 곧 애국심의 높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석탄은 연료, 동력의 기본자원이며 공업의 식량입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석탄은 공업의 식량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공업의 식량인 석탄이 있어야 화력발전소들을 만부하로 돌려 전력생산을 늘일수 있으며 온나라 방방곡곡에 있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려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를 더욱 가속화할수 있다.

인민들의 기초적인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자고 하여도 석탄이 있어야 한다.

석탄산이 높아지는것만큼 부강조국건설이 앞당겨지게 되고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 커지게 된다.

석탄산의 높이는 곧 애국심의 높이라는것을 자각하고 석탄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애국의 열정을 총폭발시켜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석탄산을 더 높이 쌓아나가야 한다.

당중앙의 불빛, 사회주의의 불빛을 지켜가는 지하의 전초병들의 불타는 애국충정은 과학기술과 결합될 때 더 큰 위력을 낳게 된다.

석탄공업부문의 전체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자력갱생대진군, 과학기술대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각 탄광마다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과학연구기관들과의 련계를 강화하여 석탄생산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풀어나가야 한다.

탄광들에서는 능률적인 채탄방법들을 받아들이고 갱내작업의 종합적기계화, 운반의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과학기술의 위력이 더욱 높이 발휘되게 하여야 한다. 탄광들에 꾸려져있는 공무기지들을 잘 운영하여 압축기와 권양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제때에 보수정비하며 우에서 대주면 좋고 안대주어도 자체로 해낸다는 관점을 가지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갈 때 그 어느 탄전에서나 기적과 위훈을 창조할수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전체 일군들과 기술자, 탄부들이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을 본때있게 벌려 석탄산을 더 높이 쌓고 9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자!

소문난 《병기창》의 위력을 떨치며

덕천탄광기계공장에서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덕천탄광기계공장은 《련합기업소의 병기창》, 《무엇이나 마음먹은대로 제작하는 자력갱생기지》로 이 지구에 소문이 자자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5개년전략수행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덕천탄광기계공장이 그처럼 소문나게 된것은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이 자력갱생대진군을 위한 단계별목표를 명백히 정해주고 새로운 탄광설비제작사업을 드세게 내밀었기때문이다.

200hp권양기를 자체로 만들때였다. 가장 걸린 고리는 힘부하를 제일 많이 받는 감속기치차를 자체실정에 맞게 만드는 문제였다. 사실 련관단위에서 보내준 자료에 기초하여 감속기치차를 제작하면 탄광들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200hp권양기를 완성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자체로 생산하는 감속기치차를 리용하자고 하였으나 실패만 거듭하였다.

련합기업소의 당책임일군은 치차이발의 크기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으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우리 힘으로 기어이 만들자고 호소하였다.

이에 고무된 기술과장 로순찬, 설계원 주광철, 공정원 류철준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다시 견인불발의 의지로 떨쳐일어나 200hp권양기를 만들어냈다.

련합기업소의 당책임일군은 덕천탄광기계공장에서 자체로 만든 200hp권양기를 덕천탄광의 운반갱과 서창청년탄광의 사갱에 설치한 후 거기서 크게 덕을 보는 현실을 권양기를 직접 만든 기술자, 기능공들이 제눈으로 보도록 참관조직을 하였다.

이것은 덕천탄광기계공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의 혁명적열의를 더욱 북돋아주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련합기업소의 당조직에서는 다음으로 광면흡입식원심통풍기를 제작할데 대한 과업을 주고 그 제작사업도 힘껏 밀어주었다. 막장이 깊어질수록 통기문제는 탄광들에서 사활적인 문제로 나선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일군들은 덕천탄광기계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속에 들어가 광면흡입식원심통풍기제작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해설해주고 기술적으로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하여 김책공업종합대학 기계과학기술대학의 해당 전문가에게서 방조를 받도록 하였다. 뿐만아니라 통풍기날개설치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지구, 장비들도 공장에서 자체로 만들어 리용하도록 적극 밀어주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일군들이 광면흡입식원심통풍기제작사업을 힘있게 밀어준 결과 훌륭히 완성된 그 탄광설비는 현재 덕천탄광에서 큰 은을 내고있다.

이 과정에 새로운 탄광설비를 제작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그 질적수준도 점점 개선되였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덕천탄광기계공장에서는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여 탄광들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공기식적재기를 새로 만들어 제남탄광에 도입하였으며 벨트콘베아도 자체로 만들어 월봉탄광에 설치하였다.

공화국창건 7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련합기업소당조직의 지도밑에 감속기가 없는 사슬콘베아와 12㎥공기압축기를 자체로 만들어낼 통이 큰 목표를 세우고 전진속도를 높이고있다.

경험은 자기 단위의 자력갱생기지들이 실지 용을 쓰도록 단계별목표를 명백히 제시해주고 그 점령을 위한 과학기술대진군에 일군들이 박차를 가하는것만큼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이 더욱 튼튼히 준비되고 그것이 곧 오늘의 증산돌격운동의 위력한 추동력으로 된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기술자, 기능공들과 한전호에 설 때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 우리 인민들의 투쟁열의는 대단히 높으며 여기에 일군들의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칙의 일본새가 안받침되면 우리에게 점령 못할 요새도 뚫지 못할 난관도 없습니다.》

모든 일군들이 사업결과를 평가하는 평론가가 아니라 당정책관철의 직접적인 설계가, 작전가, 실천가가 되어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의 뜻이다.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이 사업결과를 평가하는 평론가가 아니라 당정책관철의 직접적인 설계가, 작전가, 실천가가 되어 오늘의 자력갱생대진군, 과학기술대진군에서 앞채를 메고나가고있다.

석탄증산을 위한 오늘의 투쟁이 명실공히 자력갱생대진군, 과학기술대진군으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곳 일군들은 련합기업소아래 여러 단위들에 꾸린 자력갱생기지들이 실지 은을 내게 하는데 많은 품을 들이였다.

련합기업소 탐사설비부속품공장에서 능률높은 우리 식의 공기압축기를 자체로 제작하여 련합기업소아래 탄광들에 도입하고있는 사실을 하나 놓고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탐사설비부속품공장은 지난 시기 시추기부속품, 압축기부속품들을 비롯하여 탄광에서 쓰이는 설비들의 부속품들을 생산하는것이 기본임무였다.

하지만 련합기업소의 당, 행정책임일군들은 탐사설비부속품공장에서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능률높은 우리 식의 공기압축기를 자체로 제작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그럴만한 일이 있었다. 련합기업소아래 각 탄광의 굴진막장들이 점점 깊어질수록 압축공기가 많아야겠는데 현존설비들의 능력만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공기배관도 모자랐다.

능률높은 우리 식의 공기압축기들을 자체로 제작도입하여 굴진막장에 최대한 접근시키는것이 굴진을 중단없이 내밀기 위한 유일한 방도였다.

그리하여 련합기업소의 당, 행정책임일군들은 석탄생산의 선행공정인 굴진을 힘있게 내밀기 위하여 탐사설비부속품공장에서 대담하게 우리 식의 능률높은 공기압축기를 자체로 제작하기 위한 투쟁에로 공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을 불러일으켰다.

련합기업소의 당책임일군은 탐사설비부속품공장에 나가 4.5㎥공기압축기제작정형을 알아보는 과정에 압축기의 중요부분품을 주조하는 공정에서 걸린 문제들이 있다는것을 포착하고 즉시에 기술자, 기능공들의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공업시험실 실장 김철현동무와 주물작업반 조형공 김광철동무를 비롯한 기술자, 기능공들과의 진지한 토의끝에 원심주조방법으로 주물품을 생산하도록 합의하고 시제품생산에 필요한 각종 자재들을 보장해주었다.

공장의 기술일군의 설명을 들으며 4.5㎥공기압축기의 구조작용원리에 대하여 파악하는 과정에 련합기업소의 당책임일군은 종전의 방법대신 윤활유를 절약하여 공기압축기의 수명을 3배로 늘일수 있게 하는 새로운 방안의 실마리를 찾아주었다. 그리고 필요한 기술자, 기능공대렬을 더 보강해주었다.

련합기업소의 지배인도 공기압축기제렬생산공정을 새로 꾸리는데 필요한 여러대의 공작기계들과 세멘트와 목재, 강재, 철판기와를 비롯한 건설용자재들을 해결해주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뿐만아니라 일군들은 가정에서 준비한 후방물자들을 안고나와 대중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일군들과 공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이 우리 식의 능률높은 4.5㎥공기압축기를 이동식설비로 제작하여 굴진막장들에 효과적으로 도입한 결과 수많은 자재와 로력을 절약하게 되였으며 여러 단위의 굴진소대들에서 월평균 기본굴진을 40m 더 내미는 혁신적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련합기업소의 당, 행정책임일군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4.5㎥공기압축기를 계속 제작하게 하는 한편 자기 단위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8㎥공기압축기도 자체로 생산하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을 펼치였다.

그리하여 현재 탐사설비부속품공장에서는 련합기업소아래 탄광들에 필요한 각종 공기압축기들을 자체의 힘으로 펑펑 생산할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추어놓을수 있었다.

이곳 당, 행정책임일군들은 탐사설비부속품공장에서 타오른 자력자강의 불꽃이 련합기업소안의 모든 자력갱생기지들에서 더 거세찬 불길로 타번지게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를 따라세웠다.

그리하여 최근년간 자력갱생기지들을 새로 꾸리거나 정비보강하고 공기압축기와 적재기, 중공강, 도화선, 뢰관, 철관 등 각종 탄광설비, 자재와 부속품 30여종에 2만 5천여개를 해결하여 석탄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놓을수 있었다.

이곳 일군들의 사업경험은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생산현장의 기술자, 기능공들과 한전호에서서 과학기술대진군투쟁의 직접적인 설계가, 작전가, 실천가가 될 때 당정책관철을 위한 오늘의 창조대전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특파기자 오철훈

은을 내는 축전지식교류전차

룡산탄광에서

얼마전 우리는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득장탄광기계공장에서 만든 우리 식의 축전지식교류전차가 룡산탄광에서 은을 내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을 찾았다.

축전지식교류전차는 축전지에서 나오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켜 그것을 동력으로 하여 달리는 전차이다.

우리와 만난 룡산탄광 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이 전차는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일군이 착상하고 평성석탄공업대학 탄광전기공학부 학부장 김명길동무를 비롯한 교원, 연구사들, 련관단위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득장탄광기계공장의 기술자, 로동자들과 합심하여 만든 자력자강의 창조물이라고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운반문제를 푸는데도 힘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는 탄광일군들의 안내를 받으며 축전지식교류전차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였다.

전차공처녀에게 석탄하차장까지 함께 타고갈수 있는가고 물으니 그 처녀는 생글생글 웃으며 옆자리를 내주었다. 잠시후 축전지식교류전차는 탄차들을 끌고 기운차게 자기 구간을 달리기 시작했다.

《이 전차의 부분품들이 다 우리것입니까?》

전차안을 살펴보며 우리가 묻는 말에 달림구간을 바라보며 여유있게 운전조작을 하던 전차공처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예, 모두 우리것입니다. 축전지도, 견인전동기도,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키는 장치도 다 우리것인데 지금까지 1년나마 운전했지만 고장 한번 없습니다.》

《한교대동안 달리자면 몇시간정도 충전해야 합니까?》

《보통 2시간정도 충전하면 한교대를 달릴수 있습니다.》

《이 전차를 받아들이면 탄광들에서 전기를 많이 절약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이 전차의 축전지를 충전할 때 소비되는 전력은 전기선을 통하여 전기를 직접 쓰는 일반전차에 비해 아주 적습니다. 이 전차를 만든 득장탄광기계공장 기술자의 말을 들으니 우리 련합기업소의 모든 탄차들을 축전지식교류전차로 교체하면 거기서 절약되는 전력만도 정말 굉장하답니다.》

그러면서 전차공처녀는 이 전차의 달림구간에는 전주대는 물론이고 전기선도 그리고 일정한 위치마다 설치해야 했던 정류기와 변압기들도 필요없다고, 갱속 정전이 되는 경우에도 끄떡없이 달릴수 있으니 참 좋다고 하였다.

석탄하차장을 향해 기세좋게 달리는데 먼발치에서 누구들인가 전차공처녀에게 손을 흔들어주었다.

전차공처녀도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주며 웃음꽃을 날리였다.

탄광사람들인가고 묻는 우리에게 전차공처녀는 득장탄광기계공장의 김창록기사장과 리정술설계원인데 자기들이 만든 전차를 보게 될 때마다 저렇게 손을 흔들어주며 고무해준다고 대답하는것이였다.

얼마후 축전지식교류전차는 석탄하차장에 도착하였다.

전차공처녀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며 오늘의 석탄수송계획을 넘쳐했다고 기뻐하는 룡산탄광 사람들속에 탄광기계공장 기술자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이 《만리마》호라고 정답게 부르는 전차와 더불어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모습이 자력자강의 창조자들로 깊이 자리잡게 되였다.

탄차들의 탄이 잠간새에 다 부리워지자 축전지식교류전차는 석탄생산으로 들끓는 득장의 숨결을 전하며 또다시 기운차게 내달렸다.

본사기자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건설에서 기본은 어디까지나 자력갱생하는것입니다.》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의 여러 탄광들에서 자체의 힘으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석탄생산을 높이기 위한 증산돌격투쟁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동발과 침목의 수명을 연장

남덕청년탄광의 일군들은 동발의 수명을 연장하여 나무를 적게 쓰면서도 석탄생산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였다.

지배인과 기사장은 방부액으로 처리한 동발을 리용하면 동발수명이 5~7배로 늘어난다는데 주목을 돌리였다.

그리하여 일군들은 김성수강좌장을 비롯한 평성석탄공업대학 유연탄채굴공학부 교원들의 방조를 받아 광산에서 광물을 처리하고 나오는 폐액을 무독화하여 방부액을 생산하는 기술공정을 확립하고 탄광의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로 하여금 방부액으로 처리한 동발을 생산하는 기지에 문형기중기를 자체로 제작설치하게 하였다.

탄광의 일군들은 방부액으로 동발뿐만이 아니라 갱들에서 쓰이는 침목들도 처리하여 그 수명을 연장하게 하고있다.

현재 탄광에서는 방부액으로 처리한 동발을 생산하는 기지에서 자체로 생산한 동발과 침목을 여러 갱들에 도입하여 그 덕을 톡톡히 보고있다.

이와 함께 탄광의 일군들은 그 자력갱생기지에서 남은 쇠바줄을 리용한 콩크리트침목과 콩크리트다매동발도 립체적으로 생산할수 있게 진동다짐기, 턱형파쇄기를 설치하고 그 생산을 동시에 내밀고있다.

압축기의 부분품들을 자체로

회안청년탄광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종전에 쓰던 20㎥압축기의 여러 부분품들을 탄광의 공무기지에서 자체로 개조하여 리용하고있다.

이들은 압축기의 중간랭각장치가 수명이 다되어 못쓰게 된것을 통채로 들어내고 장치를 새롭게 제작하여 설치함으로써 여기서만도 막대한 리득금을 얻을수 있게 하였다.

뿐만아니라 지난 시기 큰 기계공장들에서만 만들수 있다고 하던 피스톤련결대를 자체의 힘으로 제작하여 압축기에 설치하였다.

이와 함께 귀중한 유색금속을 써야만 만들수 있다고 했던 어느 한 부분품을 수지로 가공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종전에 주물품으로 제작되였던 여러 부분품들도 제관품으로 개조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결과 압축기들의 수명은 2배로 늘어났으며 여러 갱들에서 그 덕을 실지로 보고있다.

본사기자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석탄증산투쟁을 벌리고있다.
－남덕청년탄광에서－

모든것을 석탄증산을 위하여!
종합갱

혁신자들을 열렬히 축하해준다.
－회안청년탄광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농촌의 모든 력량을 집중하여 더 많은 풀을 베여들이자

높은 실적을 안아온 혁신적인 사업기풍

강원도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원대한 목표와 리상을 가지고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며 새것을 창조하고 받아들이는데서 개척자가 되고 선구자가 되며 일단 시작한 일은 완강하게 내밀어 끝장을 보는 실천가가 되여야 합니다.》

강원도안의 농촌들에서 활기있게 진행되는 풀베기전투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있다. 청풀을 베는족족 논밭에 깔아주어 지력을 높일뿐아니라 가물과 고온피해를 극복하고 큰물로 인한 토지류실을 막을수 있게 한것이다.

이 성과는 정열적인 사색으로 과학적인 담보와 가능성을 찾고 모든 사업을 혁신적으로 전개해나가는 도일군들의 남다른 일본새에 뿌리를 두고있다.

화상회의를 실효성있게 조직진행한것이 대표적인 실례이다.

대중을 발동하고 불러일으키는데서 그들의 심금을 울리는 정치사업보다 더 위력한 무기는 없다. 새로운 영농방법이나 좋은 경험을 일반화하자고 해도 농장원대중이 확고히 인식하고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나선다.

도일군들은 이 문제를 중시하였다.

지난 7월초 도의 책임일군은 시, 군들에서 청풀을 베여 포전들에 깔아줌에 대한 문제를 포치하고 그 정형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협동농장들에 내려갔다. 구체적으로 돌아본데 의하면 눈에 잘 뜨이는 곳과 멀고 구석진 곳의 차이가 심하다는것, 질적으로 한 단위와 그렇지 못한 단위들이 구별된다는것이 현저하게 안겨들었다. 물론 여러 영농공정이 겹쳐 로력이 긴장한것 등 조건이 불리한것은 사실이였다.

하지만 책임일군의 눈앞에 비끼는 차이는 조건상차이가 아니라 일군들의 사상관점상차이로 무겁게 안겨왔다. 이 과정에 금강군일군들의 관점과 일본새에 주목이 돌려졌다. 이 군에서는 청풀을 베여 포전에 일정한 두께로 잘 깔아줌으로써 김잡이효과로 로력을 절약하고 고온피해를 막을뿐아니라 부침땅의 지력을 높여나가고있지 않는가. 또 문천시 남창협동농장에서는 몇해전부터 유기농법, 보호농법의 하나인 낟알짚피복에 의한 불경재배방법을 일부 포전들에 받아들여 성과를 보았었다. 청풀을 베는족족 논밭에 깔아주면 이와 같은 효과를 볼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당에서는 일군들이 소방대식으로가 아니라 제기될수 있는 문제를 앞질러 생각하고 대책을 세우며 걸린 문제해결에 어깨를 들이밀것을 요구하고있지 않는가.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는 유기농법, 보호농법실현을 위해서도 이런 좋은 경험을 일반화하여 온 도에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하자.》

결국 본격적인 풀베기전투를 앞두고 진행될 화상회의를 품들여 준비하게 되였던것이다.

그러면 도의 책임일군들은 화상회의를 어떻게 준비하고 그를 통해 어떤 실효를 거두었는가.

풀베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는것과 동시에 좋은 경험을 온 도에 일반화하는 계기로 되게 한것이다.

도당책임일군은 7, 8월은 청풀의 영양성분함량이 제일 많은 풀베기적기이며 또 이 시기에 겹치는 영농공정으로 하여 로력곡선이 매우 긴장하다. 그러나 결코 소홀히 할수 없는 중요한 영농공정이다는 내용으로 화상회의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였다. 모든 정치사업은 과학적인 자료가 안받침될 때 더 큰 실효를 거둘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도농촌경리위원회일군들에게 과업을 주어 청풀을 베여 직접 논밭에 깔아주는 방법의 우월성에 대해 원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인식시킬수 있게 자료준비를 잘하도록 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책임일군은 과학적이며 구체적인 대비자료들과 동영상자료들을 놓고 여러번 반복하기도 하고 중요대목에서는 천천히 해설해주기도 하면서 화상회의를 심도있게 진행하였다.

특히 금강군당 책임일군이 직접 허리춤에 낫을 차고 현장에 나가 풀을 베여 포전에 깔아주며 이신작칙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이처럼 화상회의를 통하여 좋은 경험들을 통보해주고 나타난 편향들은 제때에 총화대책해주니 화상회의는 누구나 기다리는 시간으로 되였다.

결과는 좋았다.

경쟁열풍이 더욱 고조되고 화상회의에 참가한 시, 군의 책임일군들은 물론 농장일군들, 작업반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까지도 낡은 경험과 농사방법에서 벗어나 과학기술에 튼튼히 의거하기 위해 진지한 탐구와 노력을 기울이게 되였다.

도안의 시, 군책임일군들은 풀베기적지를 찾아 천막을 전개하고 농장원들과 함께 청풀을 베여 포전에 깔아주면서 대중을 집단적혁신에로 불러일으켰다.

김화군을 실례들어보자. 군일군들은 성산협동농장을 본보기단위로 정하고 이 농장의 풀베기전투를 힘껏 떠밀어주어 좋은 경험을 창조하게 하였다. 그리고 즉시 온 군에 일반화하여 농장들에서 매일 계획을 120%이상 넘쳐 수행할수 있도록 하였다.

고성군의 정우도 마찬가지였다. 순학협동농장과 운정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이 사업의 절박성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집단적혁신을 일으켰던것이다.

도일군들의 혁신적인 사업기풍을 보여주는 또 한가지 좋은 실례가 있다. 풀베기전투과정을 통하여 분조관리제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도록 한것이다.

도에서는 시, 군, 협동농장일군들이 포전담당자별로 풀베기계획을 정확히 주고 총화평가사업도 짜고들도록 하였다. 시, 군일군들은 포전담당자들의 역할을 높여 담당한 포전들에 청풀깔기를 질적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조건상 불리한 포전, 뒤떨어진 농장원들의 포전들을 위주로 하여 집중적으로 풀을 베여날라다 깔아주기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내밀었다.

이와 함께 수송수단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농장원별로 베여낸 풀을 제때에 포전에 나를수 있도록 조직사업을 더욱 짜고들었다.

이처럼 도의 책임일군들이 작전과 지휘를 짜고든 결과 해당지역의 기관, 기업소, 가두인민반성원들까지도 풀베기전투를 적극 도와나섰고 도적인 풀베기전투성과는 날을 따라 부쩍 오르게 되였던것이다.

그렇다. 사색도 실천도 혁신적으로!

이것이 오늘의 시대정신을 창조한 강원도일군들이 당의 농업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보여주고있는 훌륭한 사업기풍이다.

본사기자 강금성

다수확의 담보

◇ 우리 농촌의 곳곳에 풀더미, 거름더미가 높이 솟아나고있다.

풀베기전투를 힘있게 벌리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에 떨쳐나설데 대한 구성시 농업근로자들의 호소에 화답하여 사회주의농촌 그 어디나 풀베기전투로 들끓고있다.

풀베기도 시기성을 띤다. 풀에 여러가지 영양물질이 가장 많이 함유되여있는 시기는 7, 8월이다. 바로 이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풀을 많이 베여들인다 해도 풀거름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협동농장들에서 퇴적장들을 잘 만들어놓고 풀을 베는족족 날라들여 질좋은 거름을 많이 생산하여야 다음해농사에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다.

현실은 모든 농촌들에서 풀베기전투를 적기에 전격적으로 내밀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 풀베기경쟁이자 다수확경쟁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산부문에서는 도들사이, 다수확군들사이, 협동농장들사이에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본보기협동농장대렬을 끊임없이 늘여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풀베기경쟁은 단순히 반복되는 영농공정에 따라 진행되는 실적경쟁이 아니다. 오늘의 풀베기경쟁의 목적은 사회주의전야를 더욱 기름지워 한평, 한정보의 땅이 다 다수확을 내게 하자는데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에서 땅에 유기질성분이 많으면 화학비료를 적게 치고도 농사를 잘 지을수 있다고, 세계농업발전추세를 보아도 화학비료가 아니라 유기질비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누가 더 많은 풀을 베여 거름원천을 장만하는가, 어느 농장이 더 좋은 거름을 생산하여 지력을 높이는가, 어느 군이 다수확을 내여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우는가 하는것은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알곡고지점령과 잇닿아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군들사이, 농장, 작업반, 분조들사이, 농장원들사이에 세차게 벌어지는 오늘의 풀베기경쟁은 곧 다수확을 향해 돌진하는 수확고경쟁, 증산돌격전으로 된다.

◇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조국의 전야마다 애국의 더운 땀을 뿌려야 한다.

다른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풀베기전투에서도 실적의 차이는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당정책을 접수하는 일군들의 사상관점에서의 차이에서 생겨난다.

금강군에서는 일군이건 농장원이건 풀베기적지를 찾아 천막을 치고 현장을 뜨지 않으면서 낮에 밤을 이어 전투를 벌리고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주타격전방을 믿음직하게 지켜선 진정한 애국자들이다.

일군들은 허리춤에 낫을 차고 앞장에서 땀을 흘리며 대중을 이끌어 충정의 더운 땀과 순결한 량심을 바치는 애국농민들이 전야를 꽉 채우게 하여야 한다.

농업근로자들은 한단의 풀이라도 더 베어들이기 위해 시간을 바치고 땀을 뿌리며 오늘의 풀베기전투에서 애국농민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산간, 벌방 할것없이 조국의 전야 그 어디서나 풀베기경쟁열의를 더욱 고조시켜 집단적혁신의 불길속에 질좋은 거름더미를 더 많이, 더 높이 쌓아야 한다.

온 나라가 증산돌격운동으로 들끓고있는 오늘 농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지력을 높이기 위한 풀베기전투를 더욱 힘있게 벌려 다수확경쟁에서 집단적혁신을 안아와야 할것이다.

질보장에 힘을 넣어

중화군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풀베기운동을 널리 벌려 질좋은 거름을 많이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풀베기를 하는 목적은 질좋은 풀거름을 더 많이 생산하는데 있다.

중화군일군들은 풀거름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놓고 의견을 종합하였다.

7월부터 8월사이에 벤 풀에는 질소, 린, 카리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며 물기가 충분하여 그대로 잘 썩는다.

군일군들은 이런 특성에 맞게 풀베기전투를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끝내도록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군의 실정에서 놓고볼 때 풀베는 시기는 농작물비배관리와 가을걷이준비를 위한 중소농기구수리 등 여러 영농공정들이 겹치는 때이다. 이런 조건에 맞게 일군들은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짜고드는데 선차적인 힘을 돌리였다.

여기서 잘한것은 로력을 집중시켜 풀을 베도록 한것이다. 청년들은 풀원천이 많고 먼곳에서, 녀성들은 포전가까운 구역에서 풀베기를 하도록 조직사업을 하였다.

그리고 작업반, 분조, 세대별 풀베기계획을 구체적으로 주고 풀거름을 질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켰다.

풀베기전투의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농장원들속에서는 포전으로 오고가면서도 풀을 베는 기풍이 서게 되였다. 운반조직도 먼곳에는 뜨락또르를, 가까운 곳에는 소달구지들을 배치하는 원칙에서 짜고들었다.

이렇게 하니 농작물비배관리를 비롯한 당면한 영농공정을 일정계획대로 내밀면서도 풀베기실적을 높일수 있었다.

아무리 제철에 많은 풀을 베었다 해도 그것을 제때에 잘 썩이지 못하면 질좋은 풀거름을 생산할수 없다. 여기서 이들이 힘을 넣은것은 그날 벤 풀은 그날로 더미를 쌓도록 한것이다.

일반적으로 절마른 풀보다 풀을 베는족족 퇴적장에 쌓아 생산한 거름에 비료성분함량이 더 많다. 이것을 명심한 일군들은 그날 벤 풀은 반드시 그날로 퇴적장에 쌓아놓도록 하였다. 그리고 진거름을 충분히 확보하여 퇴적장에 운반해놓고 뿌려주면서 풀더미를 쌓게 하였다.

질좋은 풀거름을 생산하는데서 또 한가지 중시한것은 퇴적장위치를 풀원천지로부터 가까운 논밭머리에 정한것이였다.

퇴적장을 포전가까이에 정해놓으니 농장원들이 작업의 쉴참이나 포전으로 오갈 때에 풀을 베여 쌓아놓을수 있었다.

이렇게 썩인 풀거름은 논밭에 낼 때에도 품이 얼마 들지 않았다. 퇴적장의 규모를 합리정한것도 좋았다. 지난 시기의 경험에 비추어 올해에는 퇴적장의 깊이를 알맞춤하게 정하였다.

그렇게 하여 군에서는 농장마다 퇴적장에서 풀거름을 더 질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던것이다.

질좋은 풀거름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단위별사회주의경쟁을 벌리면서 매일 많은 량의 풀을 베여들이고있다.

본사기자 리충일

현지보도

전투장의 불바람

강동군 삼등공예전문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땅을 기름지게 하고 정보당 수확고를 지속적으로 높이자면 논밭에 거름을 많이 내야 합니다.》

여기는 강동군 삼등공예전문협동농장 제2작업반의 풀베기전투장이다. 지금 여기서는 풀베기전투가 한창이다.

곳곳에 휘날리는 붉은기들,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부르는 구호와 표어들, 현장속보판의 힘있는 글발들과 사회주의경쟁도표의 붉은 줄들, 련결차가 넘쳐나게 풀단을 가득 싣고 달리는 뜨락또르의 발동소리…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전투장의 숨결이 그대로 느껴진다. 질쌔게 풀을 베여나가는 작업반원들의 일손마다에 불이 이는듯싶다.

작업반장이 맨 앞장에서 힘있게 낫을 휘두른다. 순간에 한아름의 풀단을 재꺽 비끄러매고는 낫을 다시 휘두르는 그의 뒤를 작업반원들이 바싹 따른다. 말없는 경쟁이 벌어진다. 서로 따라앞서기 위해 잽싸게 손을 놀리는 작업반원들의 얼굴마다에는 땀방울들이 맺힌다.

앞채를 메고나가는 초급일군들의 모습은 그대로 정치사업이 되여 작업반원들의 심금을 울려준다. 이곳에서 만난 호순옥관리위원장은 우리에게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의 앞장에 서려는 대중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고, 모두가 풀베기경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고 말한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전투장 어기저기에서 질쌔게 일손을 다그치는 작업반원들의 랑만과 희열에 넘친 웃음소리들이 연방 터져오른다.

《자, 또 올라간다.》

풀단을 뜨락또르련결차마다에 듬뿍이 올려쌓는 작업반원들, 그들의 질쌘 일솜씨에 의해 련결차가 넘쳐나게 풀더미가 무드기 쌓인다. 이어 발동소리를 울리며 뜨락또르가 퇴적장을 향해 달려간다. 또 다른 뜨락또르가 연방 련결차를 들이댄다.

뜨락또르와 경쟁을 하듯 풀단을 지고 달리는 작업반원들의 모습도 보인다. 한시간 또 한시간…

오늘의 하루하루를 열흘, 백날맞잡이로 일해나가려는 작업반원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정이 차넘치는 전투장이다.

많은 일을 더 빨리, 더 질적으로 해제끼려는 뜨거운 충정속에 사회주의경쟁도표판의 붉은 줄들은 승리의 정점을 가까이한다. 그옆에 힘있는 글발들이 나붙어 작업반원들의 가슴을 더욱 끓게 해준다.

《오전 11시현재 오늘계획 70% 수행!》

하지만 이마의 땀을 훔치면서도 쉴념을 모르는 이들이다.

《거름더미이자 쌀더미가 아닙니까. 누가 더 많은 풀을 베여 거름원천을 장만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이것은 나라쌀독을 가득 채우는데서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는가 마는가를 가르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찌 이들의 심정뿐이랴. 우리 당을 더 높은 알곡증산으로 받들어갈 농업근로자들의 불타는 충정의 마음들이 높이 쌓아가는 저 풀더미에도 어려있는것이 아닌가.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경쟁열의는 더더욱 고조된다.

증산돌격운동에 힘있게 떨쳐나선 이들의 드높은 열의에 의하여 풀더미가 늘어난다.

본사기자 방영진

력사적인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제2차 북남고위급회담 진행

【판문점 8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 력사적인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제2차 북남고위급회담이 13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통일각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우리측 대표단과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판문점선언의 리행정형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회담에서는 또한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9월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우리 나라 녀자축구팀 국제축구련맹
2018년 20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
준준결승경기에 진출

국제축구련맹 2018년 20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 조별련맹전이 진행되고있다.

축구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프랑스에서 8월 5일에 시작된 경기대회에는 우리 나라, 중국, 프랑스, 도이췰란드, 메히꼬, 브라질을 비롯한 16개 나라와 지역의 팀들이 참가하였다.

4개 조로 나뉘여 벌어지고있는 조별련맹전에서 우리 나라 녀자축구팀은 2조에 속하여 잉글랜드팀, 메히꼬팀, 브라질팀과 경기를 하였다.

12일 브라질팀과의 조별련맹전 마지막경기가 있었다.

주도권을 쥐기 위한 량팀 선수들의 경기활동은 시작부터 치렬하였다.

빠른 기동과 높은 기술동작으로 공격과 방어를 결합해나가던 우리 팀의 11번 손순임선수가 경기시간 44분경 공격마당 왼쪽에서 날아오는 공을 넘겨받아 차넣기한것이 그대로 그물에 걸렸다.

선수호상간 깨인 협동으로 공격속도를 높여나가던 우리 팀에서 또다시 경기마감시간에 20번 최금옥선수가 머리받기로 득점하였다.

결국 우리 나라 팀은 이날 경기에서 브라질팀을 2:1로 이겨 조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다음단계 경기에 진출하게 되였다.

우리 나라 팀은 17일 프랑스팀과 준준결승경기를 하게 된다.

제16차 국가발명전람회 폐막

제16차 국가발명전람회가 폐막되였다.

지난 3일에 개막된 전람회에서는 전국의 과학자, 기술자, 근로자들이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자강력을 끊임없이 증대시키며 생산적앙양을 일으켜나가는 과정에 발명권, 특허권을 받은 1 000여건의 발명기술들이 소개되고 경험들이 교환되였다.

대용량수력발전기용조속기, 회전로에 의한 연정광소결방법, 온실에서 메탄가스생산체계를 비롯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실현을 추동하는 발명기술제안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폐막식이 13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태성동지와 내각부총리 임철웅동지,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승두동지, 국가과학원 원장 장철동지, 관계부문, 성, 중앙기관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발명가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폐막식에서는 종합심사결과가 발표되였다.

국가과학원, 교육위원회, 보건성, 출판지도국, 강원도과학기술위원회 등 14개 단위가 1등을 하였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와 과학자, 기술자, 근로자들에게 컵과 메달, 증서가 수여되였으며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기술교류사 부원 김성은, 자연과학연구원 연구사 장영만, 화학부 강좌장 장금주에게 세계지적소유권기구에서 보내여온 발명가메달, 증서가 수여되였다.

폐막사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리충길동지가 하였다.

연설자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우리의 힘과 기술로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첨단기술개발과 국산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발명창조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그 성과를 현실에 적극 받아들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국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기술혁신경험토론회 및 성과전시회 진행

전국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기술혁신경험토론회 및 성과전시회가 8일부터 13일까지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위원회, 성, 중앙기관과 각 도직맹위원회들에서 선발된 기술혁신제안자들과 직맹일군들, 로동자, 직맹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기술혁신경험토론회에서는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리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이 발표되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 이바지할수 있는 200여건의 새 기술혁신안들이 성과전시회에 출품되였다.

기술혁신안들은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절박하게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실천적의의가 큰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13일에 있은 폐막모임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참가자들에게 국가발명증서와 창의고안증서, 표창장 등이 수여되였다.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조국번영의 활로를 열어갈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드높은 애국열의를 보여준 이번 기술혁신경험토론회 및 성과전시회는 경제건설대진군을 힘있게 추동하는데서 좋은 계기로 되였다.

조선반제로병위원회 주요성원들과 로씨야로병련맹대표단사이의
회담 진행

조선반제로병위원회 주요성원들과 로씨야로병련맹대표단사이의 회담이 13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반제로병위원회 부위원장 륙군대장 박재경동지를 비롯한 주요성원들이, 상대측에서 련맹위원장 예비역륙군대장 미하일 모이쎄예브를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로병련맹대표단 성원들과 알렉쎄이 바르두쏘브 주조 로씨야련방대사관 무관이 참가하였다.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회담에서는 조선반제로병위원회와 로씨야로병련맹의 활동정형이 통보되고 두 나라 로병단체들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해나가기 위한 의견들이 교환되였다.

이날 조선반제로병위원회는 로씨야로병련맹대표단을 위하여 환영연회를 마련하였다.

해양체육활동 활발

강원도안의 각급 학교들에서 수영활동이 적극 벌어지고있다.

원산, 문천시, 고성, 통천군에서는 수영관련자료와 상식을 널리 보급하는것과 함께 송도원, 시중호해수욕장과 곳곳에 꾸려진 수영장들에서 수영과 경기를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학생들의 수영수준을 훨씬 높이고있다.

천내, 안변군안의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에게 물속에서 뜰힘을 조성하는 묘리와 호흡조절 등 수영기초기술동작들을 정확히 배워주어 여러가지 수영방법을 소유하도록 하고있다.

이천, 금강군의 학교들에서는 수영장을 번듯하게 꾸려놓고 수영관정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학생들의 해양체육열의를 높여주고있다. 김화, 철원군을 비롯한 산간군의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에게 해엄방법과 기재리용, 물에서의 긴급구조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배워주어 용감성과 대담성, 집단주의정신을 키워나가도록 하고있다.

공화국정부가 몽골 대통령 사무국장일행을 위하여
환영연회 마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몽골 대통령사무국장일행을 위하여 1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환영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잔다후진 엔호볼드 몽골 대통령사무국장과 일행, 쑤렌깅 초그제렐 주조 몽골 특명전권대사가 초대되였다.

외무상 리용호동지, 관계부문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할트마긴 바트톨가 몽골 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몽골 대통령사무국장일행 도착

잔다후진 엔호볼드 몽골 대통령사무국장과 일행이 13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외무성 일군들과 주조 몽골 특명전권대사가 맞이하였다.

로씨야로병련맹대표단 도착

련맹위원장 예비역륙군대장 미하일 모이쎄예브를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로병련맹대표단이 13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조선반제로병위원회 일군과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대사관 무관이 맞이하였다.

중국친선대표단 도착

사원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친선대표단이 13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가 갈길은 오직 자력자강의 한길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부름따라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에 총궐기해나섰다.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 어떤 신념과 배짱이 그들의 가슴마다에 산악처럼 자리잡았는가.

이 물음에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한마음으로 화답하는 웨침소리가 뢰성처럼 강산을 울리는것만 같다.

자력자강!

이 정신만 있으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나선 오늘의 증산돌격운동은 자력자강의 위대한 힘으로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 우리 당과 인민의 불같은 각오와 철의 의지의 발현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자강의 길만이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존엄을 살리고 혁명과 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길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걸어온 혁명의 길은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에 의거하여 온갖 도전과 난관을 짓부시며 승리떨쳐온 자력자강의 길이다.

추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나라찾는 싸움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의 진로를 휘황히 밝혀주시면서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립장과 태도를 가지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신 그날의 뜻깊은 교시가 뜨겁게 메아리쳐온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오직 자체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여야 한다는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자력자강의 정신이 갈길 몰라 헤매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었다.

그 고귀한 정신은 조선혁명가들의 신념의 뢰대로, 승리의 기치로 되여 박달나무도 얼어터진다는 백두의 설한풍을 길들인 불굴의 투쟁정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연길폭탄정신을 낳았으며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안아오지 않았던가.

해방은 되였어도 페허나 다름없는 땅에 새 나라를 건설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더우기 나라의 주인이 되여야 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오랜 세월 천대와 멸시, 억눌림에 시달려온것으로 하여 사상적으로 뒤떨어져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덮어놓고 다른 나라의 본을 따려고 여기저기 뛰여다녔다.

바로 그러한 때 강선의 로동계급은 자기들의 일터를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게 되였다.

천대와 고역속에 멍이 든 로동자들의 험한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이제는 동무들이 기둥이며 주추돌이라고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어린 교시에서 우리 로동계급은 나라의 주인된 자각을 새기였으며 제힘으로, 제손으로라는 말의 참뜻을 깨달았다.

자주적운명개척의 새 력사가 시작된 해방후 5년간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자기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고난과 시련도 이겨내고 그 어떤 높은 목표도 점령할수 있는 가장 위력한 담보라는것을 절감하였으며 그때부터 우리 인민의 길은 혁명의 길, 투쟁의 길, 존엄높은 자주의 길로 되였다.

가렬했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한것도, 재더미우에 사회주의공업국가를 일떠세운 기적도 바로 자력자강, 그 불굴의 정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였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우리 인민의 자력자강의 정신력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동력으로 되고있다.

적들의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미래파학자거리, 려명거리를 비롯한 현대적인 거리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르고 강원땅에는 대규모축산기지가 펼쳐졌으며 철의 기지들에서 주체철생산의 우렁찬 동음이 울려퍼지는 장엄한 현실은 오직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설 때 혁명의 최후승리가 있다는것을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자체로 살아나가겠다는 정신을 가지지 못하고 남에게만 의존하려고 하면 나중에는 눈뜨고 사대망국노가 될수 있다고 하신 뜻깊은 가르치심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속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자력자강의 한길임을 뼈속깊이 새겨준다.

강국건설을 지향하는 나라와 인민에게 있어서 남에 대한 환상, 외세의존만큼 유해롭고 위험한것은 없다.

남에 대한 의존심은 자기 힘을 홀시하고 믿지 않는데로부터 생겨난다.

영토가 크든작든, 인구가 많든적든 자기 나라 혁명은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해나갈수 있으며 또 기어이 해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에 대한 의존심은 나라를 현대판식민지, 속국으로 만들고 혁명을 망치는 화근이라고 할수 있다.

세계사회주의운동력사에 새겨진 뼈저린 교훈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이전 동유럽나라들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서 자기 실정에 맞는 방법론을 찾을 대신 큰 나라의것을 무턱대고 받아들인탓에 큰 나라 지도부에 틀고앉은 사회주의배신자들의 개혁, 개편바람에 덩달아 춤을 추었으며 종당에는 피로써 쟁취한 사회주의전취물을 잃고만것이 아닌가.

현시기 다른 나라와 민족을 노예화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더욱더 악랄해지고있는 조건에서 자력자강의 길로 꿋꿋이 나아가는것은 사활적인 문제로 나서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전략적목적과 리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오늘의 세계에서 남의 도움을 바라는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다.

우리가 갈길은 오직 자력자강의 한길!

이 굽힘없는 신념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모든 일을 우리 당의 구상과 결심대로, 우리 인민의 지혜와 힘과 열정으로,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해나가는데 우리의 영원한 승리와 존엄, 강성번영이 있다.

우리는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의 불길높이 자력자강의 한길로 끝까지 갈것이다.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실현된 사회주의강국의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본사기자 허명숙

은파광산 굴진갱의 로동계급

로동자들의 기술혁신자랑

우리가 은파광산 굴진갱을 찾아 떠난것은 취재길에서 만났던 광산의 한 일군의 이야기때문이였다.

《몇달전 우리 광산에서는 채취공업성적인 굴진공경기대회가 진행되였는데 여기에서 굴진갱의 광부들이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비결은 한마디로 말해서 갱에서 자체로 연구한 합리적인 발파방법을 받아들인데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보십시오. 정말 돋보이는 동무들입니다.》

굴진갱 갱장 송광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평범한 로동자들이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내고있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호기심을 자아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로동계급의 혁명성에 현대과학기술을 결합시키면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굴진갱에 도착한 우리가 제일먼저 들린 곳은 지령실이였다. 여기서는 지령원이 지심깊이에 있는 생산공정을 손금보듯 장악하고 해당한 지시를 주어 갱내 작업을 합리적으로 지휘하고있었다.

《바로 이것이 〈한소편콤퓨터에 의한 생산공정장악과 지휘체계〉입니다. 이렇게 앉은자리에서 생산을 지휘하니 로력도 절약하고 생산실적도 올라가 정말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지령원의 말에 의하면 이 체계를 창안한 사람은 굴진공 한영팔동무라고 한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공부한 그가 광산적으로 소문난 창의고안명수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우리는 갱에 들어가 착암작업을 하고있는 굴진공들도 만나보았다.

마침 그들은 지난번 성적인 굴진공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광부들이였다.

그들은 호기심을 금치 못해하는 우리에게 발파효률을 90% 이상 보장할수 있다는 새로운 발파방법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주었다.

도화선과 폭약을 비롯한 자재들을 종전에 비해 훨씬 절약하면서도 굴진속도를 높일수 있는 그 발파방법을 갱장 송광철동무와 갱의 광부들이 창안하였다고 한다.

알고보니 굴진갱의 대다수 광부들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공부하였거나 현재 배우고있었다. 우리는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갱에서 과학기술을 매우 중시하고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었다.

우리는 굴진갱의 로동자들이 광산과학기술보급실과 하나의 망으로 련결된 영상설비를 통하여 기술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화선전실로 발걸음을 옮기였다.

우리가 문화선전실에 들어서니 교대작업을 마친 로동자들이 한창 기술학습을 하고있었다.

우리는 여기서 창의고안명수인 한영팔동무를 만날수 있었다.

《이렇게 현장에서 여러가지 과학기술학습을 하고나면 생산에서 애를 먹던 문제들이 한순간에 다 풀리는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더 많은 광석을 캐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과학기술룡마의 고삐를 억세게 틀어쥐고 경제강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날으려는 이곳 로동계급의 한결같은 지향을 느낄수 있었다.

평범한 로동자들의 기술혁신자랑,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있는것인가.

우리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열심히 배우고 애쓸 때 누구나 과학기술룡마의 주인이 될수 있으며 그렇게 될 때 내 조국의 전진도 보다 빨라진다는것이다.

우리는 과학기술로 더 높이 비약할 이곳 로동계급의 밝은 앞날을 그려보며 이곳을 떠났다.

본사기자 정영철

강계정신의 창조자답게

단천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자강도려단 돌격대원들

당의 웅대한 구상이 현실로 펼쳐지고있는 단천발전소건설장 어디서나 울리는 함성이 있다.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자강도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도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투장마다에서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강력만이 살길이고 승리의 길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만사를 자강력으로 해결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강도려단에는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자력갱생기지가 있다. 그 자력갱생기지에는 선반, 롤반, 련판기를 비롯하여 각종 설비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발전소건설이 시작된지 1년도 안되는 사이에 훌륭히 꾸려놓은 자력갱생기지에 의지하여 려단의 돌격대원들은 뽐프와 전동기, 압축기, 변압기 등의 수리와 정비를 마음먹은대로 진행하면서 굴착기실적을 쉼없이 높여나가고있다.

사람들의 감탄을 더욱 자아내는것은 그 모든 설비들을 려단지휘부성원들이 직접 다루고있다는 사실이다. 강계정신의 창조자답게 단천발전소건설의 앞장에서 내달리자면 려단지휘부성원들부터가 앞채를 메고 달려야 한다는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의지인것이다.

려단장과 정치부장이 함께 리용하는 침실에는 많은 과학기술도서들이 있다. 이것을 놓고서도 려단의 자력갱생의 기수, 창의고안의 명수들이 다름아닌 려단지휘관들임을 어렵지 않게 알수 있다.

이들의 사색은 언제나 공사에서 걸린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로 지향되고있다. 식사시간을 비롯한 짬시간은 대부분 그런 문제들에 대한 토의로 이어진다.

건설초기 자력갱생기지를 일떠세울 때에도, 첫 전동기수리가 진행될 때에도 그들의 침실에서는 열띤 토론이 진행되였다. 전투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방도를 찾으며 한밤을 지새운적은 그 얼마였던가.

지난 1월초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고 대원들과 굴착기전투를 힘차게 벌리던 려단장 김영준동무는 무거워지는 마음을 어쩔수 없었다. 경막장에서 발파가스가 빠지기를 안타까이 기다리는 돌격대원들의 모습이 그의 눈뿌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던것이다.

굴착기속도를 높이자면 결정적으로 발파가스를 빨리 제거해야 한다는것을 절감한 그는 자체로 발파가스제거제를 만들어낼 결심을 품게 되였다.

정치부장 정창영동무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그는 발파가스제거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밀고나갔다. 북방의 강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백리길을 달려 팽윤토도 채취해오며 필요한 설비를 마련하느라 입술까지 부르튼 지휘관들의 이신작칙은 끝끝내 발파가스제거제생산의 성공을 안아왔으며 하여 발파후 막장진출시간은 앞당겨지게 되였다.

자력갱생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앞장에서 내달리는 지휘관들의 일솜씨는 려단안에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켰다.

우리는 강계정신의 창조자들이다!

어디서나 이런 목소리가 울려나오는 속에 자력갱생기지에서는 련이어 가스흡착제와 3상전동기보호장치가 개발생산되여 보다 높은 굴진실적을 이룩하고 설비들의 가동률을 최대한 높일수 있게 되였다.

각 대대의 돌격대원들도 자기 힘을 믿으면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는 신념을 만장약하고 전투장마다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갔다.

강계시대대와 랑림군대대의 돌격대원들이 련속천공, 련속발파로 굴진속도를 높이고있을 때 희천발전소대대의 돌격대원들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내놓아 압축기와 권양기, 양수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였다.

어찌 이들만이랴. 려단의 전체 돌격대원들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단천발전소건설에서 값높은 자욱을 새겨갈 일념안고 자력갱생의 불바람을 일으키고있다.

자강도려단에 타오르는 자력갱생의 불길, 여기에는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헤치며 완공의 그날을 향하여 힘차게 내달리는 강계정신창조자들의 끝없는 충정의 세계가 깃들어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신현규

불보다 뜨거운 심장

보산제철소 회전로직장 1호회전로작업반원들

보산제철소 주체철생산자들의 심장이 용암처럼 끓고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의 앞장에는 응당 나라의 맏아들인 로동계급이 서야 한다는 드높은 혁명적열의와 자각을 안고 힘찬 공격전을 벌리고있는 주체철생산자들속에는 회전로직장 1호회전로작업반원들도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전인민적총진군에서 혁명성과 조직성이 강하고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지닌 로동계급이 마땅히 주도적이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수행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현장을 돌아보던 작업반장 허영진동무는 송풍기가 있는 곳에서 들려오는 웨침소리에 놀라 급히 그곳으로 달려갔다. 두 송풍기운전공이 서로 실갱이를 벌리는 모습이 눈에 뜨이였다.

무슨 일인가 하여 다가가는 그의 귀전에 이런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여기 걱정은 말고 어서 들어가 병치료를 하십시오.》

《볼트들이 풀리지 않았는가 돌아보고 인츰 들어가지.》

이렇게 말하며 공구를 들고나서던 송풍기운전공 김광남동무는 자기앞에 서있는 작업반장을 발견하자 대뜸 굳어졌다. 김광남동무는 병치료를 받아야 할 몸이였다. 그래서 작업반원들이 등을 떠밀다싶이 하여 집으로 들여보냈었다. 일부러 엄한 얼굴표정을 짓는 작업반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김광남동무가 미소를 지으며 넌지시 귀맛좋은 소리를 했다.

《송풍기가 왕왕 돌아가는 소리를 들어야 마음이 놓이는걸 어떻게 합니까. 송풍기소리만 들어도 내 병은 뚝 떨어집니다.》

작업반장은 불시에 코허리가 찡해졌다. 자기가 맡은 기대를 눈동자와 같이 관리하며 불비한 요소들을 제때에 퇴치하여 작업반이 더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할수 있도록 남모르는 구슬땀을 바쳐가는 김광남동무였다.

작업반장의 가슴속에 집단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그들먹이 차올랐다.

원료장입으로부터 용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공정을 손금보듯이 꿰뚫고 생산지휘를 박력있게 해나가는 사령원이며 랭각기의 운전과 관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하고있는 랭각기운전공들, 회전로의 지지로라들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낮이나 밤이나 정상가동을 보장하기 위해 뛰고 또 뛰는 로체공들.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의 발자취가 뜨겁게 어려있는 영광의 일터를 지켜섰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나라의 강철기둥을 억척같이 떠받들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작업반원들이였다.

걸음을 옮기는 작업반장의 머리속에 회전로의 출구에 용선들이 부착되였을 때의 일이 떠올랐다.

회전로의 출구를 바라보는 작업반원들의 얼굴에 근엄한 기색이 어리였다. 작업반원들이 쇠장대를 든든히 맞잡고 고열을 내뿜는 불덩이앞으로 다가섰다. 드디여 부착물이 제거되고 회전로의 출구에서 시뻘건 용선물이 쏟아져내렸다.

그들이 전투를 벌린 시간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그들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앞장에서 순간의 주저와 답보도 없이 힘차게 내달리는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투신력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강선의 쇠물폭포의 시원이 보산제철소의 주체철폭포라면 주체철폭포는 어디에 시원을 두고 있는것인가. 그것은 바로 보산제철소 회전로직장 1호회전로작업반원들과 같이 자기들이 지켜선 초소를 증산돌격전의 운명이 판가름되는 최전방으로 여기고 당이 정한 돌격침로를 따라 질풍노도쳐 나아가려는 로동계급의 뜨거운 심장인것이다.

본사기자 조경철

대고조전투장들에 더 많은 골재를 보장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려나간다.
—대동강골재사업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우리 우편통신원

선천군체신소 한래복동무는 지난 20여년간 누가 알아주건말건 우편통신원으로 성실하게 일해오고있다.

그가 지금까지 당보를 비롯한 출판물들과 우편물들을 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담당지역안의 공장, 기업소들과 주민세대들을 찾고찾으며 걸은 길이 그 얼마인지 사람들은 다는 모른다.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에도 그는 자기 한몸이나 가정보다도 당이 맡겨준 초소를 지켜 변함없는 길을 걸어왔다. 어떤 날에는 앓는 동무를 대신하여 밤길도 많이 걸었다.

그는 당의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남다른 긍지와 영예감을 안고 언제나 남먼저 당보를 학습하군 하였으며 담당지역에 나가 당보에 실린 내용들을 해설선전하면서 사람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또한 인민군대후방가족들에게 조국보위초소에서 자식들이 보내여오는 편지들을 제때에 전해주면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군 하였다.

20대의 청춘시절에나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오늘에나 한모습 변함없이 자기 초소를 지켜 우편통신의 보람찬 길을 변함없이 걷는 그를 두고 군안의 주민들은 우리 우편통신원이라고 사랑과 존경을 담아 부르고있다.

오늘도 한래복동무는 당사상전선의 전초선을 지켜 자기의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고있다.

로동통신원 차춘건

금메달을 위해 바쳐진 아름다운 삶

체육연구원 체육의학연구소 연구사였던 박사 김성실동무에 대한 이야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애국자란 칭호는 조국과 인민이 자기의 훌륭한 아들딸들에게 주는 값높은 칭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국제경기무대에서 우승하여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인 체육선수들을 더없는 존경과 사랑을 안고 바라보군 한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금메달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며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대해서는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것이다.

조국을 위해, 우리 체육선수들이 어머니당에 자랑찬 승리의 보고를 드리는 그 환희로운 순간을 위해 누가 알아주건말건 깨끗한 량심을 다 바치는데서 더없는 삶의 보람을 찾았던 한 체육의학연구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전하게 된다.

3중세계선수권보유자이며 올림픽경기대회 우승자, 2중세계선수권보유자이며 올림픽경기대회 우승자, 세계선수권보유자이며 올림픽경기대회 우승자를 비롯한 세계적인 기계체조명수들을 배출하는데 이바지하였으며 우리 체육선수들이 80여개의 국제경기 금메달을 쟁취하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

이것은 체육연구원 체육의학연구소 연구사였던 박사 부교수 김성실동무가 30여년간을 체육의학연구부문에서 일해오면서 쌓은 성과의 일부이다.

주체105(2016)년 8월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가 진행되는 브라질의 어느 한 경기장에는 우리의 람홍색공화국기가 서서히 올랐다.

우승의 시상대에 오른 리세광선수는 저 멀리 조국의 하늘가를 바라보며 승리의 보고를 삼가 드리였다. 그의 승전소식에 접한 우리 인민들은 커다란 환희에 휩싸였다. 이때 누구보다 격정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녀인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김성실동무였다. 올림픽경기대회의 승리의 금메달에는 그의 헌신의 땀방울도 새겨져있었다.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 출전준비를 하고있던 리세광선수가 발목에 심한 부상을 당하였을 때였다.

체육부문 일군들과 감독들은 우려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의 부상은 오랜 시간의 안정치료를 요구하였는데 경기대회까지는 불과 40일이 남았던것이였다. 그런 몸상태를 가지고 그가 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한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이였다.

모두가 안타까운 심정을 안고 모대기고있던 바로 그때 훈련지도성원들앞에 조용히 나서는 사람이 있었다. 김성실동무였다.

《그는 경기에 참가해야 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리였다. 그 눈빛들을 바라보며 그는 이 말을 곱씹었다.

《꼭 참가시켜야 합니다. …》

그의 가슴속에서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의학적판단을 밀어던지며 용암처럼 끓이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금메달로 조국에 기쁨을 드리겠다고 애국의 땀방울을 뿌려온 리세광선수를 기어이 우승의 단상에 우뚝 올려세우고싶은 열망이였다.

드디여 기적은 일어났다. 김성실동무의 피타는 노력으로 마침내 선수의 몸상태가 회복되였던것이다.

어찌 리세광선수뿐이랴.

지금으로부터 20년전 당시 세계체조계의 《안마왕》으로 불리우고있던 배길수선수가 제13차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맹훈련을 하다가 그만 부상을 입게 되였다. 경기성과는 둘째치고 대회참가여부가 론의될만큼 부상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이때에도 김성실동무의 헌신적노력으로 배길수선수는 마침내 몸상태를 회복하고 경기에 출전하게 되였고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게 되였다.

체육인들의 삶은 금메달로 빛난다. 하다면 체육의학연구사들의 삶은 무엇으로 빛나는것인가.

《그는 정말 한생을 불같이 살아온 쉽지 않은 녀성과학자입니다.》

《과학자이기 전에 참된 애국자였습니다.》

…

이것은 우리와 만났던 체육의학연구소 일군들과 연구사들이 자주 입에 올리군 하던 말이다. 그들은 김성실동무의 불같은 한생에 대하여 이렇게 추억하였다.

1980년대 초엽 함흥의학대학을 졸업한 김성실동무는 평양산원에서 의사로 일하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문득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저… 난 체육의학연구부문에서 일을 해보았으면 해요.》

깊은 호수같던 두눈이 정열로 이글이글 타번지는것을 보자 강학세동무는 서둘러 그 눈길을 피했다.

체육부문에서 일해온 그로서는 체육의학연구사업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여보, 그 일은 욕망 하나만으로는 안되오. 다시 잘 생각해보는게…》

이렇게 말하며 시선을 돌린 그는 그만 말끝을 흐리였다.

안해의 얼굴에는 긴장되고 흥분된 속에서도 이미 모든것을 결심하고 각오하였을 때 생기게 되는 그런 자신심이 넘쳐있었던것이다.

《저도 쉽게 내린 결심은 아니예요. 하지만 전 한생 금메달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싶어요.》

그러나 결심과 실천사이에는 적지 않은 거리가 있는것이다. 그 길에는 두 아이를 거느린 가정주부인 그가 늘 선수들과 함께 살다싶이 해야 하는 직업을 너무 쉬이 선택하지 않았던가 하고 생각해보게 되는 순간도 없지 않았다.

언제나 그의 일과는 아침기상시간에 선수들의 몸상태를 관찰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되여 훈련장에서 그들의 훈련상태를 보면서 외상을 치료하고 또 훈련이 끝난 다음에는 선수들의 피로회복을 시켜주는것으로 끝나군 하였다. 그러다나니 언제 한번 제손으로 따끈한 밥을 지어 남편공대를 해볼새가 없었고 단란한 가정적분위기를 느껴볼새는 더욱 없었다. 하기에 어린 아들이 늘 어머니에게 투정질을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아들을 꼭 껴안고 이렇게 말하군 하였다.

《엄마는 진석이의 엄마이기도 하고 체조선수형님누나들의 어머니이기도 하단다.》

김성실동무는 이렇듯 금메달을 위해 묵묵히 자신과 가정의 모든것을 다 바쳐갔다.

그는 한가정의 어머니이기 전에 선수들의 어머니였고 보호자였다. 한생을 이렇게 살아온 김성실동무였다.

우리는 여기에 김광숙, 홍은정선수를 비롯한 기계체조선수들의 최고몸상태조성을 위해 수많은 피로회복제들과 기재들을 연구도입해가며 불타는 열정을 다 바쳐온 나날들을 다는 적지 못한다. 하지만 김성실동무가 바쳐온 헌신의 낮과 밤들은 조국의 영예를 빛내인 금메달과 더불어 오늘도 빛을 뿌리고있다.

우리는 수많은 참고도서들과 연구성과들에 비낀 김성실동무의 깨끗한 량심과 헌신의 세계에 대해서도 깊이 알게 되였다.

치료사업과 연구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그 바쁜 속에서도 밤에는 밤대로 전투를 벌려 참고도서들을 집필하고 아침이면 또다시 훈련장으로 드바삐 발걸음을 옮기고…

그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구사들도 체육과학연구사업에 깨끗한 량심을 다 바쳐가도록 적극 이끌어주었다.

몇해전 함께 일하던 한 녀성연구사가 가정사정으로 하여 연구소를 떠나려고 하였다.

그때 김성실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신념이 없이는 과학탐구의 먼길을 못 가요. 물론 사람마다 직업을 선택할 권리는 있지만 조국의 명예를 외면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어디에 가서든 좋은 연구성과를 거둘수 없다고봐요. 체육인들의 훌륭한 경기능력이야말로 우리 체육의학연구사들이 조국에 드리는 금메달이 아니겠어요.》

성실동무는 자기의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들려주며 그를 고무해주었다.

가정적고충과 애로를 가슴속에 묻어두며 수십년세월 과학탐구의 머나먼 길을 걸어왔을 김성실동무의 모습을 보며, 친언니와도 같은 그의 타이름을 들으며 녀성연구사는 자신을 뉘우치게 되였다. 성실동무는 그의 연구사업을 적극 도와주어 그가 예술체조선수들의 최고몸상태조성에 이바지할수 있는 소론문을 완성할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렇게 이어져온 김성실동무의 30여년세월이였다. 그는 안해이고 어머니이였지만 언제나 조국의 영예를 먼저 생각했기에 모든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며 온넋과 열정을 선수들의 우승과 체육의학발전에 쏟아부었다.

이 나날에 그는 여러권의 체육의학도서를 집필하고 《여린 녀자체조선수들의 나이별기능발달에 대한 연구》, 《체육선수들의 최고몸상태조성을 위한 의학적조종방법》, 《운동성빈혈진단프로그람》을 비롯한 수십건의 중요한 연구과제들을 완성하여 나라의 체육의학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어머니당에서는 그의 공로를 헤아려 전국지식인대회,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대표로 불러주었으며 체육부문의 박사로 내세워주었다.

나라의 체육의학발전을 위해 응당 해야 할 일을 했을뿐인 평범한 연구사에게 크나큰 믿음을 거듭거듭 안겨준 당의 은정에 높은 사업실적으로 보답하려는 열망으로 생을 초불처럼 불태워온 김성실동무.

람홍색공화국기가 세계의 하늘가에 높이 휘날리는 그 한순간을 위하여 한생의 모든것을 다 바쳐온 그는 지난 3월 어느날 심장이 고동을 멈추는 순간까지도 녀자기계체조선수들과 함께 있었다.

김성실동무는 우리곁을 떠나갔지만 조국의 존엄과 영예와 잇닿아있는 무수한 금메달과 더불어 그의 한생은 주체체육사에 뚜렷한 자욱으로 남아있다.

본사기자 주령봉

고결한 인품과 덕망을 지니신 위대한 태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가장 열렬한 사랑과 정, 믿음과 의리로 인류를 품어안아주신 20세기의 태양이시다.

한번 뵈오면 순간에 온넋이 끌리고 그 위대함을 소리높이 구가하게 되는것이 우리 수령님의 위인적풍모였다.

태양의 인력과도 같은 사랑과 인덕에 끌려 온 세계가 그이의 품에 안겨들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고결한 인품과 덕망을 지니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자주시대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희세의 정치가이실뿐아니라 한없이 고결한 인간애를 지니시고 진보적인류를 따뜻이 품어주신 만민의 어버이, 인간사랑의 참다운 귀감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의 갈피마다에는 숭고한 사랑과 의리로 시대와 력사를 수놓으신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이 수없이 아로새겨져있다.

주체73(1984)년 5월 21일, 《씨비리의 수도》로 불리우는 노보씨비르스크에서는 세인을 감동시키는 화폭이 펼쳐졌다.

세기의 태성인으로 칭송받고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외국방문의 장정을 이어가시던 길에 이곳에서 노비첸꼬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시였던것이다.

노비첸꼬는 해방직후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지켜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내댄 국제주의전사였다.

수십년세월이 흐르도록 그를 잊지 않고 심중에 새겨두고 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광활한 씨비리대지를 횡단하시는 길에 노보씨비르스크의 농촌마을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있던 그를 만나주시였다.

수십년이라는 세월의 흐름속에 씨비리의 평범한 늙은이로 변한 노비첸꼬.

하지만 혈기에 넘치던 젊은 시절의 붉은군대 군관을 대번에 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너무도 반가우시여 노비첸꼬를 넓은 품에 한껏 그러안으시였다.

20세기를 대표하는 걸출한 위인과 씨비리벽촌에 후반생을 묻은 평범한 전쟁로병과의 상봉은 그야말로 사변적인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열광적으로 환호하던 군중들은 그 광경앞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온 행성이 위대한 인간이신 우리 수령님의 고매한 덕성, 진함을 모르는 의리의 세계에 머리를 숙이는 력사적인 순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살아온 경위와 가정형편에 대해 일일이 알아보시고 세월의 이끼속에 파묻혀있던 그의 위훈을 하나하나 회고해주시였다.

노보씨비르스크에서 노비첸꼬와 헤어지신 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시고 그의 위훈을 내용으로 하는 영화도 하나 잘 만들어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모스크바에 체류하시는 기간에도 노비첸꼬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은정은 이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외국방문을 마치신지 얼마 안되여 노비첸꼬와 그의 가족을 평양으로 불러주시였다.

머나먼 지방현지지도의 길에서 노비첸꼬를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류탄을 몸으로 막아나섰던 대담무쌍한 영웅전사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자신의 존함이 새겨진 금시계를 선물로 안겨주시였다.

그후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노비첸꼬를 자주 우리 나라로 불러주시고 주실수 있는 사랑과 은정을 다 돌려주시였다.

진정 세월의 흐름에도 변함이 없고 끝을 모르는 가장 열렬하고 진실한 사랑과 의리의 력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는 그대로 인간사랑의 력사였으며 지구를 가득 채운 그이의 환한 미소, 따사로운 손길은 인간세상을 감싸주는 태양의 빛과 열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두번이나 만나뵙는 영광을 지닌 외국의 한 인사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사람을 진짜인간으로 되게 하는것은 자주성에 기초한 인간애와 인정미이며 그것을 인간의 향기라고 말할수 있다.

아름다운 꽃이 풍기는 향기에 반하여 벌과 나비들이 모여들듯이 고상한 인간이 지닌 인간애와 인정미에 매혹되여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뭉치게 되는것이다.

김일성주석께서 지니신 인간애와 인정미, 인간향기는 참으로 뜨겁고 숭고한것이여서 만사람들을 매혹시키고있으며 언제나 그이를 존경하고 따르게 하고있다.》

이 말은 그 폭과 깊이를 헤아릴수 없는 위대한 수령님의 인덕과 사랑의 세계에 대한 례찬이였다.

직업의 귀천과 인종, 사상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각계각층 사람들을 사랑과 정을 다해 뜨겁게 대해주신 인간중의 인간, 한번 만나 정을 주고 믿음을 주시면 세월의 끝까지 품어주고 보살펴주시는 인간사랑의 최고화신이 바로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캄보쟈의 노로돔 시하누크와 깊은 인연을 맺으시고 형세가 어떻게 변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 그에 대한 의리를 지켜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이야기는 오늘도 만사람의 가슴을 적셔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54(1965)년 4월 시하누크와 첫 상봉을 하신 때로부터 근 30년세월 변함없는 의리로 곡절많은 인생길을 걸은 그를 지켜주고 이끌어주시였다.

언제인가 시하누크는 위대한 수령님께 조선에 자주 찾아와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고 말씀드린적이 있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친우들사이에 무슨 그런 말을 다하는가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친왕을 일단 나의 벗으로, 친구로 사귀였고 친왕과 형제관계를 맺은 이상 그가 왕으로 있든, 그 무엇으로 있든 계속 나의 친구이다, 때문에 당신들은 나와 친왕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라, 나는 영원히 친왕을 지지할것이다고 이야기해준다고 교시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의 사랑과 의리는 이처럼 진실하고 변함이 없었다.

외국의 어느 한 학자가 슬하에 자식을 두지 못한 마음속고충을 안고있다는것을 아시고는 건강관리를 잘하라고 신선로와 인삼탕을 보내주시고 또 언제인가는 대통령이 된 한 나라의 항쟁투사에게 자신의 존함이 새겨진 금시계를 채워주시며 인민들앞에 의젓하게 나서라고 고급양복천까지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하기에 단 한번만이라도 우리 수령님을 만나뵈온 외국의 벗들은 위인의 사랑과 믿음을 생의 자양분으로 받아안고 한생토록 그이를 위대한 어버이로, 스승으로 절절히 흠모하고 우러러 따른것이다.

이딸리아에는 《태양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빛을 뿌린다.》는 격언이 있다.

온 세상을 밝혀주고 덥혀주는 사랑의 빛발로 인류에게 광명을 주고 참된 삶을 주신 우리 수령님이시야말로 위대한 인간,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만물은 따스한 해빛을 따르고 사람은 진정어린 사랑을 따르기 마련이다.

인류는 한없이 뜨거운 인간애와 하늘같은 덕망을 지니시고 이 세상에 인덕의 대서사시를 수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 칭송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터뜨리고있다.

본사기자 리철혁

애국위업의 한길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총련은 각급 조직들과 단체, 사업체들을 애국애족의 성돌로 철옹성같이 다지며 특히 지부중시사상을 일관성있게 틀어쥐고 모든 기층조직들을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산조직으로, 상부상조의 미풍과 따뜻한 정이 흘러넘치는 화목한 동포동네로 꾸려나가야 합니다.》

지금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5천년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융성번영의 새 전기가 펼쳐지는 격동적인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절세위인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총련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앞당기기 위한 애국애족의 진군을 가속화해나가고있다.

진군길의 앞장에서

총련 도꾜도본부 일군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련 제24차 전체대회에 보내주신 력사적인 축하문을 높이 받들고 자기 단위를 강위력한 지역적지도단위로 반석같이 다지고 애국애족운동의 새로운 리정표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지난 시기 본부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새기도록 하는 학습회와 강연회, 기념행사 등 다양한 정치선전사업을 주동적으로 벌리였으며 내외반동들의 모략선전을 제때에 짓부시고 어머니조국의 참모습을 동포들에게 깊이 새겨주었다. 또한 지부경쟁운동과 애국애족모범창조운동, 집중전과 돌파전 등 대중적혁신운동들을 중단없이 힘차게 벌려 지부와 분회를 비롯한 기층조직들을 애국애족의 성돌로 다지고 특히 아다찌지부를 비롯하여 앞선 지부들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지부위원장들의 실무능력과 수준, 역할도 부단히 높이였다.

민족교육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는데 최근에만도 관하 5개 초중급학교들의 학생수를 늘이고 총련 도꾜조선제1초중급학교와 도꾜조선제6초급학교의 새 교사를 일떠세웠다. 그 기세로 머지않아 총련 도꾜조선제3초급학교의 새 교사건설도 완공하고 지역안의 모든 학교들의 교사를 훌륭히 갱신한다고 한다.

얼마전 총련 도꾜도본부는 다가오는 공화국창건 70돐을 민족의 대경사로 빛내이며 애국애족의 진군을 가속화하기 위한 혁신운동에 궐기하였다.

자신들이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본분을 깊이 간직하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기 위한 진군길의 앞장에서 내달리려는 이들의 불타는 의지는 반드시 풍만한 결실을 맺을것이다.

자랑찬 전통을 굳건히 이어

총련 사이다마현본부산하 중부지부 오오미야히가시 2분회는 애국애족의 자랑찬 력사와 전통이 스며있는 단위이다. 일찌기 종합모범분회칭호와 애국영예기칭호를 쟁취하고 애국애족분회의 영예를 지닌 자랑찬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갈 열의가 온 분회안에 차넘치고있다.

분회장과 분회위원들이 앞장서고있다.

그들은 자신들부터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융성번영하는 조국의 참모습을 소개선전한 《조선신보》 등 출판물들을 통한 학습을 강화하고있다.

분회장 김승택동포는 30년간 분회장으로 사업한 아버지의 뜻을 이어 기층조직강화의 길에 스스로 나선 동포이다.

평범한 로동자였던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 잠시 쉬새도 없이 분회가방을 들고 동포가정들을 찾아가던 모습은 오늘도 그의 뇌리에 깊이 새겨져있다. 아버지를 비롯한 선대들처럼 살기 위해 그는 언제나 동포들속에 들어가 제기되는 크고작은 문제들을 알아보고 그를 풀기 위해 뛰고 또 뛰고있다. 그 모습에 감동된 동포들은 기꺼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대로 동포들과 일상적인 련계를 맺고 동포사회를 위해 무한히 헌신하며 분회조직을 동포들이 진심으로 믿고 의탁하는 생활거점으로, 화목한 동포동네로 꾸릴수 있다는것이 분회장과 분회위원들이 얻은 귀중한 경험이다.

본사기자 허영민

언제까지 《평화》간판으로 세계를 기만하려는가

해마다 패망일을 맞는 일본의 감정은 괴로울것이다.

1945년 8월의 패전이래 73년간 하루같이 파쑈전범국의 흉상을 털어버리고 이른바 《평화국가》, 《정상국가》의 새로운 신분을 얻어보려고 모지름을 써온 일본이다.

이로부터 전후 일본에 대외정치적으로 가장 많이 소요된것이 있다면 《평화》라는 용어일것이다.

《평화헌법》, 《평화의 시대》, 《평화적발전》, 《적극적평화주의》, 《평화실현》에 이르기까지 너무도 무성하다.

정의와 도덕, 평화를 문명과 발전의 기준으로 삼는 현세기의 흐름까지 도용하여 더욱더 《평화주의》를 고창하며 《선량한 국가》의 행적을 광고하고있다.

최대의 정치만화로 력사에 기재된 《선한 일본인》상은 일본의 이러한 영상개변광증의 집중적산물이다.

1980년대에 이르러 일본의 한 신문사는 세계적인 정치만화가를 초청하여 일본인의 새로운 초상을 그리게 하고 착한 맏아들을 상징하는 《다로상》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지난날 게다짝에 비텅이가 드러난 우습고 못난 모습으로 국제사회의 경멸을 받던 일본인의 상을 세계적인 정치만화가의 손을 빌어 일약 아름답게 만들려 하였던것이다.

이후 일본정객들은 《다로상》을 바탕으로 자국에 《선량한 국가》, 《평화국가》의 면사포를 씌우며 세계를 기만하여왔다.

일본집권자는 패망 60년을 맞으며 발표한 담화에서 《평화》라는 말을 무려 12번이나 해가면서 일본의 전후력사는 전쟁에 대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준 《평화》의 60년이였다고 떠벌이였다.

정책자문기관이 명시한 《21세기 일본의 국가상》의 대외정치표어도 《아름다운 나라》건설과 《적극적평화주의》였다.

수상 아베는 《적극적평화주의는 새로운 일본의 자화상이며 앞으로 일본을 대표하고 이끌어나갈 하나의 기치》이라고 력설하였다.

일본이 패망후 《평화국가》로서 전쟁부정의 맹세를 견지해왔으며 앞으로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적극 기여할것이라고 한 아베의 태평양전쟁패전 70년 담화는 더욱 요망스럽다.

집권자가 《전후 70여년 일본의 평화행보에 긍지를 느낀다.》고 공언할 정도로 일본은 미화분식에 여념이 없다.

과연 일본이 평화국가다운 성숙의 길을 걸어왔단 말인가.

아니다. 패망과 함께 《천황》제를 보존한 일본은 평화의 막뒤에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군국주의부활의 일로를 걸어왔다.

그 량면성과 교묘성은 정치행보에서 뚜렷이 로출되였다.

《다로상》의 정치만화를 출현시킨 나까소네가 바로 《전후정치총결산》을 운운하며 군국주의부활을 노린 《평화헌법》폐기의 실제적발단을 떠놓은자이다.

지금도 일본정계에서 《평화헌법》개정주장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있으며 국민의 반수이상이 《평화헌법》개정에 손을 들어주고있는것이 현 일본사회의 실상이다.

21세기에 맞는 일본의 《새로운 모습》의 골자는 일본이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여왔다는 패전국의 심리에서 벗어나 세계정복야망을 실현하여야 한다는데 있다.

변함없는 침략야망으로 살기충천한 일본의 현 모습은 분명 피묻은 군기인 《히노마루》를 쳐들고 《황군》이 부르던 소름끼치는 《기미가요》까지 웨쳐대며 해외팽창의 길로 뛰쳐나가고있는 파쑈광의 흉상이다.

지난 세기 얼토당토않게도 《평화》를 국가년호로 삼고 《동양평화》를 제창하며 조선침략과 청일전쟁, 로일전쟁, 태평양전쟁을 감행한 일본이 오늘 또다시 《평화》의 간판을 들고 《새로운 자태》를 운운하는데 대해 혐오감을 금할수 없다.

오늘날 일본의 정치적영상은 진정한 평화를 바란적도, 말과 행동이 일치한적도 없는 전범국의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남아있다.

세기가 지나도록 과거범죄를 청산하지 않고 있는 정치난쟁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전쟁세력, 돈밖에 모르는 경제동물식 사유국가를 대하는 국제사회의 시선은 차갑다.

일본은 전후 70여년간 《평화》를 침략적대외정책의 위장간판으로 삼아온 량면적처신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있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는 대화와 긴장완화에로 지향되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평등과 호혜, 미래를 위한 전면적인 관계조정과 발전의 길을 택하고있다.

이러한 때에 일본의 이중적행태는 세계평화흐름을 좌우하는 조선반도문제에 대한 립장에서 그 본색을 드러낼수밖에 없다.

년초부터 수상을 비롯한 고위정객들이 뻔질나게 《북의 미소외교에 넘어가지 말라.》, 《제재압박의 결과이다.》라고 이간질을 일삼으며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러다가 정작 력사적인 판문점수뇌상봉에 이어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이 성사되자 코가 납작해지게 되였다.

이를 두고 미국의 CNN방송이 《아베정권은 북조선을 믿지 말라고 충고해왔지만 미국과 남조선이 대화에 나섬으로써 무시당했다.》고 보도하는 등 아베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수많은 언론들이 야유하였다.

《내가 먹으려다 먹지 못하는 포도에 흙을 던진다.》는 이소프우화의 여우마냥 [illegible] 《제재압박일변도》에 매달리다가 평화의 대흐름에서 배제된 소외현실은 일본의 《평화주의》의 기만성과 지난 세계대전의 패전국이라는 수치만을 강조해주고있다.

이 계기에 일본은 모든것에 진정성이 없는 정치적기질로 하여 주변나라들과의 《빈곤외교》에서 실패하여온 력사의 교훈을 되새겨보는것도 괜찮을것이다.

지역의 평화보장을 위한 대화마당에서 강아지취급이나 받고있는것이야말로 그들의 자업자득이라고 할수 있다.

불안해난 일본이 탈출구를 찾아보려고 약삭바른 속구구를 하지만 문제는 근본에 걸려있다고 본다.

세계평화와 안정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조선반도문제를 대하는데서 관건은 세계적인 전략국가인 우리 공화국의 실체를 똑바로 보고 대외정책적립장을 조율하는것이다.

일본에 있어서 평화에 대한 진정성은 과거청산에 있다.

《일본인구의 80%가 전후세대로서 그들에게 사죄를 계속할 숙명을 지워서는 안된다.》는 아베의 발언이 일본의 본심이라면 누가 그런 나라를 평화지향국가라고 하겠는가.

실천이 없는 《평화》치장은 세계에 대한 기만이고 우롱일뿐이다.

일본이 진정 국제적인정을 원한다면 달라진 세계를 납득시킬수 있는 성숙된 정치도덕적면모부터 갖추는것이 좋다.

그래야 일본의 좌절은 비로소 끝나게 될것이다.

일본연구소 연구원 리명화

남조선단체
환경파괴에 대한 역적당패거리들의 사과를 주장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서울의 소리》에 의하면 대구환경운동련합이 3일 성명을 통해 환경파괴의 책임에 대해 사죄할것을 《자유한국당》소속 대구시의원들에게 요구하였다.

성명은 《자유한국당》대구시의회 의원들이 대구시의 수원지이전을 들고나오며 이를 거부한 환경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이는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대구시의 수원지이전이 2008년 건설기술연구원의 조사에서도 5 000억원이 넘는 사업비와 환경파괴 등을 리유로 타당성이 없는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성명은 밝혔다.

또한 대구만 살겠다고 수원지를 상류에 옮기면 하류에 살고있는 부산, 경남사람들은 어찌되겠는가고 성명은 비난하였다.

성명은 《자유한국당》이 수도물의 안전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지금 대구 수도물의 안전을 끔찍이 생각하는 당신들이야말로 그를 근본적으로 해친자들이 아닌가.

4대강사업을 강행하여 강의 자연성을 완전히 망쳐놓은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의 《정권》이였고 그에 철저히 복무한것이 정상도 《자유한국당》이였다. 모래판과 습지가 어우러진 천연자연정화체계를 가지고있는 강의 생태적기능을 짱그리 망가뜨린것이 4대강사업이다.

4대강사업후 락동강은 죽음의 수로가 되였고 자연정화체계가 무너져 흐르지 않아 속수무책으로 썩어가고있는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렇게 만든 장본인들이 수도물의 안전타령을 하고있으니 실소를 넘어 분노가 치밀어오른다.

대구시의원들은 대구 수도물의 안전과 대구 수원지의 이전을 운운하기 전에 먼저 《자유한국당》이 한 지난 일을 돌아보고 대구시민앞에 머리숙여 사과부터 하는게 순서이다.

남조선언론
기무사의 수사권페지 요구

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최근 남조선에서 기무사령부의 개혁과 관련하여 사령부가 가지고있는 수사권을 페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지난 시기 기무사령부는 자기의 수사권을 악용하여 수많은 간첩사건들을 조작하거나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하였다고 한다.

실례로 어느 한 장교가 군사기밀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3년 6개월간의 징역살이를 하였다.

그러나 그와 가족들은 기무사령부가 강압적으로 《군복만 벗으면 간단하게 끝날 일》이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여 거짓자백을 하였다고 항소하였다.

방송은 이에 대해 전하면서 이처럼 기무사령부의 수사는 그동안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기무사령부는 현재 내란, 반란, 리적죄 등 특정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방송은 이러한 《대공수사권》을 악용하여 정치적목적으로 간첩사건을 만들어내거나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외곡하였다고 비난하였다.

방송은 기무사령부의 수사권축소가 아니라 페지할것을 각계는 요구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과거침략범죄에 대해 사죄할것을 요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8일 시민단체인 《평화나비대전행동》의 주최하에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집회가 대전에 있는 소녀상앞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성노예피해자할머니들이 피맺힌 한을 풀지 못한채 세상을 떠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피눈물의 력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제의 침략범죄에 대해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당국이 과거침략범죄에 대해 진정으로 사죄할 때까지 투쟁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이어 집회참가자들은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다양한 선전활동을 벌렸다.

* *

남조선의 《경향신문》이 10일 사설을 통해 성노예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전쟁범죄를 력사에 남길것을 주장하였다.

사설은 《정부》가 성노예문제와 관련한 조사연구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성노예문제전반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것은 이전 《정권》들이 이에 대해 수수방관하였기때문이라고 사설은 비난하였다.

사설은 남은 성노예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나기전에 일본의 전쟁범죄, 인권침해의 진실을 력사에 남겨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일본에 대한 올바른 력사관을 심어줄수 있는 조사와 연구를 심화시켜야 한다고 사설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제5차 까스삐해연안국가수뇌자회의 진행

제5차 까스삐해연안국가수뇌자회의가 12일 까자흐스딴의 악따우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까스삐해연안국들인 로씨야, 까자흐스딴, 아제르바이쟌, 이란, 뚜르크메니스딴의 국가수반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까스삐해수역 분할문제, 까스삐해의 생태환경과 생물자원보호, 해저수송관부설 등의 문제들이 토의되였으며 일치한 합의가 이룩되였다.

회의끝에 5개 나라 대통령들은 까스삐해의 법적지위에 관한 협약에 조인하였으며 꼼뮤니께가 채택되였다.

또한 반테로 및 조직적범죄와의 투쟁, 사고방지, 무역경제, 운수분야에서 협조를 발전시킬데 관한 의정서들과 협정 등 문건들이 체결되였다.

다음번 수뇌자회의는 뚜르크메니스딴에서 진행된다.

로씨야에서 영국총령사관 페쇄

로씨야에서 최근 싼크트-뻬쩨르부르그주재 영국총령사관이 페쇄되였다.

로씨야외무성 공식대변인은 영국총령사관페쇄조치가 로씨야의 선택이 아니라 영국의 비우호적인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강조하였다.

지난 3월 영국의 솔즈버리시에서 발생한 독성화학물질에 의한 이전 로씨야정찰총국 군관암살미수사건을 계기로 영국이 23명의 로씨야외교관을 추방하자 그 대응으로 로씨야외무성은 자국주재 영국외교관 23명을 추방하고 싼크트-뻬쩨르부르그주재 영국총령사관을 페쇄하며 영국자문기관의 활동을 금지한다는것을 선포하였다.

안데스산줄기의 얼음면적 대폭 감소

지구온난화의 후과로 안데스산줄기의 얼음면적이 급격히 줄어들고있다.

9일에 발표된 한 국제적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지난 40년동안 뻬루에 있는 이 산줄기의 얼음면적이 거의 50%나 감소되였다.

전문가들은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안데스산줄기의 얼음면적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취할것을 호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중국에서 강도높이 진행되는 범죄와의 투쟁

중국에서 범죄와의 투쟁이 강도높이 벌어지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광동성에서 올해 상반년에 520여건의 범죄사건이 적발분쇄되였다.

광동성공안청은 성안의 여러 지역에서 체포작전들을 벌려 20여개의 범죄집단을 적발하고 수백명의 범죄혐의자들을 체포하였으며 수많은 범죄도구들을 압수하였다.

호북성에서도 범죄집단을 제거하는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였다.

성당위원회와 성정부가 범죄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특별행동지도소조를 내오는 등 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든 결과 성에서는 올해 상반년에 36개의 조직범죄집단을 적발하였으며 약 3 750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6 840명의 범죄혐의자들을 형사구류하였다.

사회에 범죄가 성행하면 인민들의 생명재산이 엄중히 침해당하고 민심이 불안해지며 무규률과 무질서가 조성되여 사회적기강의 확립과 국가의 정상적인 운영 및 발전에 막대한 저애를 주게 된다.

여러 분야에서 각이한 형태로 나타나는 범죄를 근절하는것은 바로 나라의 발전과 광범한 인민대중의 안전, 사회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중국당과 정부는 이 사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각종 범죄가 번식하고 만연할수 있는 온상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얼마전 중국최고인민법원이 각종 엄중한 범죄에 대한 단속처벌을 계속 강화할것을 강조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총기류범죄, 유괴범죄에 대한 정돈 및 처벌강도를 높이고 의료진에 대한 폭력, 교내폭력 등 폭력범죄, 가짜상품제작, 환경오염을 비롯한 각종 범죄를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안전을 수호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중국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판매권을 침해하고 상품을 위조하는 현상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가짜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강한 타격을 가할데 대한 통지문을 작성하였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7월말 길림성 장춘시에 있는 장춘장생생물과학기술유한책임공사에서 법과 규률을 위반하고 미친개병왁찐을 망탕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습근평주석은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여 사건관계자들을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하는 한편 조사결과를 제때에 발표하여 대중의 우려를 하루빨리 해소할데 대한 중요지시를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들에서는 여러 사업들이 조직진행되고있다.

현재 장춘시공안기관에서는 질이 낮은 약품생산 및 판매죄혐의로 공사 리사장을 비롯한 18명의 범죄혐의자들에 대한 구속을 비준해줄것을 검찰기관에 제기한 상태이다.

또한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장춘장생생물과학기술유한책임공사의 미친개병왁찐접종사업의 후과를 가시기 위한 대책안을 공동으로 배포하였다.

그에 의하면 장춘장생생물과학기술유한책임공사의 미친개병왁찐접종을 받았거나 아직 접종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접종단위가 무상으로 다른 공사의 합격된 왁찐을 접종해주게 되여있다.

만일 접종을 받은 사람이 보충접종을 요구하는 경우 접종단위는 무상으로 보충접종을 해주어야 한다.

현시기 중국에서는 협잡전화를 거는 현상도 늘어나고있다.

불순한 목적추구를 위해 협잡전화를 거는 현상 역시 정상적인 국가운영과 인민생활안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요소이다.

최근 중국의 해당 부문은 올해 7월부터 다음해 12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협잡전화를 거는 현상을 정돈하는것과 관련한 특별행동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있는 각종 범죄를 쓸어버림으로써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키려는 중국당과 정부의 조치는 광범한 근로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고있다.

본사기자 림원

ㄱ-1811271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우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위원실 373-2492, 당력사교양부 373-2686,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2782,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